



## 3년 새 부동산 1兆 처분...생보사 '눈물의 매각'

저효율 투자처 줄여 수익성 제고... '킵스' 대비 자본 확충  
삼성생명 대치·삼성동 빌딩 등 '최대'...한화도 매각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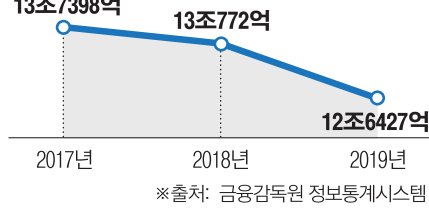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3년 새 1조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킵스)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수익성이 낮은 투자처를 줄여 자산운용수익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들

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12조6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9월 13조7398억 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3년 새 1조971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9월 4조2037억 원으로 2017년(5조1784억 원) 대비 9747억 원 줄었다. 삼성생명은 2~3년

생명보험사 부동산 자산 현황  
(단위: 원, 9월 기준)



전부터 부동산 매각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강남의 대치2빌딩을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했으며 서울과 수원, 부산, 광주 등에 위치한 빌딩 6개를 종합 부동산그룹인 MDM

에 넘겼다. 여기에 대전, 분당, 안양 등의 부동산도 팔았다.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서도 삼성동 빌딩과 인천 구월동 사옥 매각 등 유류 부동산 정리를 진행 중이다.

3조5000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앞으로 매각 작업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보험사들이 부동산 등 저효율 운용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자산 중

투자 비중을 타 보험사 대비 높게 유지했다"며 "자산의 투자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영유의를 내렸다.

이 밖에 주요 생보사들은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가 지상과제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매각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IFRS17과 함께 K-ICS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지금보다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9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



4대 그룹 총수 한자리에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계 화두는 '고객가치·디지털 혁신·지속가능'

그룹 총수·CEO 신년사 보니

삼성·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는 2일 지속가능, 고객가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요약되는 올해 화두를 던졌다.

글로벌 저성장과 경기둔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이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경쟁력으로 디지털 혁신을 꼽았다. 특히 올해는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답은 고객에게 있다'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뒀다. ▶관련기사 2·9·13·14면

재계 만형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은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2020년은 100년 기업을 만들어 나갈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또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경기 변화에 강건한 사업 체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역시 "2020년을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를 위해 기술, 사업기반, 조직문화에서 혁신과 고객 최우선 목

표를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리더십 확보라는 개념적 목표와 함께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부터 '새해 인사 모임'을 없애고 디지털로 신년사를 공개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의 오랜 경영철학인 '고객가치'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6분여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해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며 "바로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마음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신년사도 고객에 방점이 찍혔다. "고객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며 "새해에는 '숲속의 고객'을 보는 기업, 그리고 그 숲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도 재계 CEO들의 핵심 화두였다. 김

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디지털 기술이 경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가 그룹 디지털 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각 사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추진해 실질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태수 GS그룹 신임 회장 역시 초경쟁 시대 속 생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 끊임 없이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년사는 아니었지만 새해 첫 업무로 2일 경기 화성사업장 내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상생성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잘못된 관행과 사고를 과감히 폐기하고 우리 이웃,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사회적 가치 전도사' 최태원 SK 회장은 새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가 아닌 일반 시민과 고객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담 형식을 통해 올해 그룹 경영의 지향점을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정책기조 유지' 강조한 文대통령

신년인사회 "힘들지만 가야 할 길"  
"헌법 따라 권력기관 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경제 운용 방식과 검찰개혁 중심의 개혁작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 촉진 세제 3중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



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20년은 생활SOC 10조 원 시대의 첫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면서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中, 새해 벽두부터 경기부양

6일 시중銀 기준율 0.5%p 인하...133兆 유동성 공급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안갯속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평가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시중에 8000억 위안(약 13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다가오는 춘제(설)를 앞두고 실물 경제 지원 및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중국 경제 전체 구

모로 보면 이번엔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가 시장에 보낸 시그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양날의 칼과 같다.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대출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성장 엔진이 아예 꺼져버릴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0jung2@



# '100년 기업' 꿈을 현실로... 고객과 '청사진' 그린다

## 신년사로 본 세계 이정표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경영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위기극복을 통해 10년, 1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고, 디지털 전환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특히 임직원 모두 고객 가치를 실현해 남보다 한발 앞선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신년사 단골 키워드인 상생 역시 중요하게 언급됐다. 세계 신년사를 키워드별로 살펴본다.

◇'100년 지속 성장' =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0년은 100년 기업을 만들어 나갈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의 실현'이라는 꿈을 함께 공유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래 시장 리더십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시장 리더십을 가시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동시에 '스타트업 창업가'와 같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실행도 당부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100년을 향한 원년이 되는 올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특히 조 회장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듯 '혼자 아닌 함께'를 강조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걸음에서 넘어지는 동료도 있다면서 서로 일으켜주고 부축해 주면서 새 미래를 향해 가자는 다짐이다. 조 회장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업의 진화와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을 강조했다.

◇위기일수록 고객에 '답' 있다 = 어려울수록 '고객이 답'이라는 오랜 기업 경영 철학도 올해 신년사 화두로 등장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위기일수록 고객 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누구보다 앞서가고 더 나은 미래와 세상을 향해 함께 가는 따뜻한 기업을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도 '고객'을 신년 키워드로 삼았다. 조현준 회장은 "고객의 목소리를 나

의 공통된 견해

김승연 한화 회장은 전자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한화 가질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촉발된 기술을 장착하고, 경영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그룹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회사를 화두로 내세웠다. 허태수 회장은 "IT와 데이터를 결합해 우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두산그룹은 '디지털전환'과 '신사업'을 중점 과제로 내놨다. 박정원 회장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에도 힘을 기울이자"며 "또 디지털 전환 작업의 결과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도 속도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역시 "미래 준비를 위한 글로벌 선도 디지털 운영체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대, 상생·준법·행복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체계를 확립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경영활동의 준거로 삼아 실천함으로써 내재화하고 체질화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신년사를 통해 준법정신을 언급했다. 전영현 사장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준법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SK그룹 계열사 CEO의 신년사에는 그룹 철학인 '행복'이 강조됐다. 장동현 SK(주) 사장은 '2020년 최고경영자(CEO) 행

## 주요 그룹 신년사 키워드

-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미래 100년 (지속성장)
- LG 구광모 회장: 고객 중심
-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미래시장 리더십 확보 원년
- 한화 김승연 회장: 대체불가 경쟁력, 신뢰
- 두산 박정원 회장: 디지털전환, 신사업
- 효성 조현준 회장: 특이점, AI, 고객, VOC
- GS 허태수 회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 LS 구자열 회장: 환경변화 대응, 현금흐름 강화
- 포스코 최정우 회장: 미래 100년, 상생, 친환경, 안전

송영록 기자 syr@

### 지속가능

현대차,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도전 밑바탕 미래 리더십 확보

### 고객가치

오랜 기업 경영철학 앞세운 LG 고객 입장에서 위기 극복 해법 마련

### 디지털 혁신

한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

침범으로 삼아야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고객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존 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고객 감동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창수 사장은 "고객들이 아시아나를 선택하는 이유를 보다 더 세밀히 분석해 우리의 강점인 서비스 경쟁력이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은 필수 = 올해 기업 신년사에는 '디지털 전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이 필수라는 게 기업 CEO들

박다짐이라는 신년사를 통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구성원의 행복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실질적인 구성원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h point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 이 아이스팩 기부를 북극곰이 고마워합니다

현대홈쇼핑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 현대백화점그룹의 친환경 캠페인, Green Friends

현대홈쇼핑은 매달 4,000봉께 아이스팩을 기부 받아 필요한 곳에 나누어 드리고, 참여 고객께는 H.Point를 선물로 드리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는 전자영수증 발행 및 다양한 친환경 사업 지원을 통해 푸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립의 끝은 공멸... ‘K-팝’ 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 노사 갈등 - 전문가 제언

민주화 이후 30여 년,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세계 130위라 평가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톱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와 도발, 경제성장률의 추락, 일자리 위기, 4차 산업혁명 등 하나 하나가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도전들이다. 이러한 도전을 헤쳐 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은 노사협력력이다. 불신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 경제가 브레이크 없이 공멸의 내리막길로 질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노사관계가 턱어라운드하기 위해서는 첨예한 제도적 쟁점을 해결하는 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

무역전쟁·北 도발·일자리 위기... 퍼펙트 스톱 마주한 한국경제

회사는 투명경영으로 신뢰받고 노조도 투쟁 멈추는 절제 필요 새 문화 위해 노동교육 확대를



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등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 제도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

도 관련 쟁점을 다루는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전의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이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첨예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간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몽플뢰르 시나리오 콘퍼런스다. 남아공은 오랫동안 극심한 흑백 간 인종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몽플뢰르 콘퍼런스를 통해 양보와 타협, 점진적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플라밍고 시나리오를 선택함으로써 인종 간 화해와 사회 통합을 이뤘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콘퍼런스에 참여한 각계 대표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 하는 시나리오 대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인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토양이 되는 가치, 의식, 관행, 즉 노사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불신, 불통, 비타협, 상대방 탓하기, 나만 살기 등의 의식과 관행을 신뢰, 소통, 타협, 상생의 새로운 문화로 혁신해야 한다. 그리하여 '케이(K)-팝' 처럼 자랑스러운 'K-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적인 노사문화 혁신을 위해 사용자는 투명 경영을 통해 신뢰를 얻고, 노사협의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며, 경영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경영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바뀌어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에 항거하듯 투쟁을 능사로 여긴다면 시대착오다. 이제 조합원 200만 시대가 열렸고 그만큼 노동조합의 책임이 커졌다. 힘이 강해진 만큼 선진 노동운동처럼 힘의 행사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노동운동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일터 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사가 함께 설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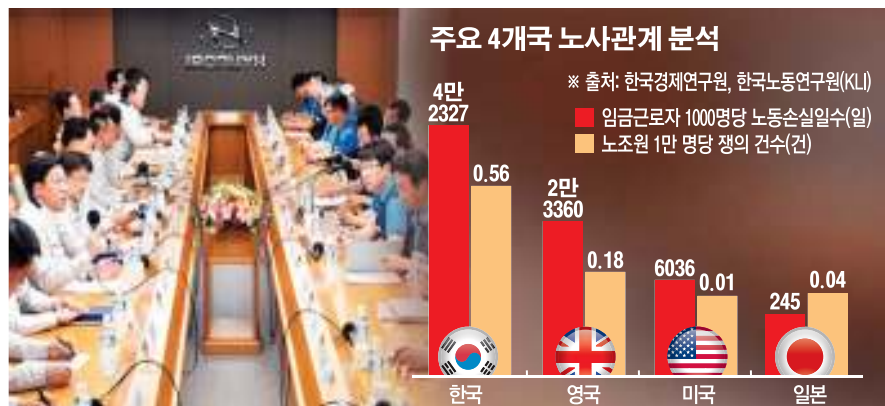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노사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기법, 새로운 노사문화 실행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를 실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951년생,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박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등 역임  
-저서 '한국의 노동',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등 다수



## 후진적 노사문화의 민낯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최종 타결했다. 2019 현대차 임단협 본교섭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3배

잇단 투쟁, 회사 경영악화로 직결 작년 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타결 최근 노사관계 상생 조짐 엿보여

‘춘투(春鬪)’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이 봄에 집중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한국 노동계의 투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춘투에 이어 하투(夏鬪), 추투(秋鬪)라는 말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협력보다 대립에 가까운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노사협력순위 평가에서 평균 123위에 그쳤다. 노사 대립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최대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미·일·영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크고 작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파업은 총 47건으로, 예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16년(29건) △2017년(40건) △2018년(40건)보다 증가했다. 르노삼성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국립대병원, 타워

크레인 업체가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하반기에도 철도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와 미래차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자동차 업계가 그렇다. 현대차 노조는 8년 만에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고, 노조 지도부로 실리 성향 후보를 선출했다. 이상수 현대차 신임 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파업을 지양하고 조합원 실리와 고용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차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보다 고용 안정을 우선하는 인식이 자리잡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고용 위기를 계기로 노사가 협력하게 된 선례가 있다. 스페인 비야돌리드에 있는 르노 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반 연간 29만대를 생산했지만, 금융위기와 유럽 경제 위기로 2006년 생산량이 7만 대까지 떨어졌다. 공장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노사는 대타협을 맺었다. 그 결과 스페인 공장은 2014년 전성기 시절 생산량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오히려 노사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 산업이 맞이한 130년 만의 변화가 현대차 노사를 협력하게 만들었다”며 “노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도 대립을 멈춰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www.kamco.or.kr



#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 ③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공존-공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다져온 자유무역이 기로에 섰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자유무역은 최근 주요 경제대국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로 치명상을 입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1723~1790)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비판했던 중상주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G20, 5개월간 새 무역규제 28개 4602억 달러... 역대 두번째 규모

美-中 2단계 무역협상 '안갯속'

나프타 대체 USMCA도 갈등 내재

유럽 '브렉시트 혼돈' 현재진행형

미국의 신규 위원 임명 거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 사실상 정지

글로벌 경제 대국들은 현 자유무역 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갉아먹는다면 '보이지 않는 장벽(Wall)' 건설에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이 5~10월 추가한 신규 무역 규제가 28개에 이른다며 밝혔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가 4602억 달러(약 54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강조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 규제 조치가 일자리 창출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던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신(新)자유무역협정(USMCA)과 관련, 급한 불은 꺼졌지만 글로벌 무역환경을 악화시킬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신임 총재는 "경제 상태에 있는 글로벌 무역이 2020년에 다소 회복된다고 해도, 글로벌



공급망 단절, 통상 정제, 디지털 장벽 등으로 나타난 균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합의문 서명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내용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무역협상도 안갯속이

다. 개시 날짜도 확정이 안 된 데다가 1단계 무역합의 시행 여부에 좌우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린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중국 정부가 '마이동풍' 식으로 산업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며 보조금 철폐를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세계무역기

구(WTO)는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업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 미국의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처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풀리지 않은 속제다.

지난해 12월 10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USMCA)에 전

격 합의하면서 불안을 잠재웠지만 노동감 독관 파견을 두고 시작부터 멕시코와 미국이 부딪힌 것을 고려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붕괴된 협정 말고도 미국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와 관련, 75억 달러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도 살아 있다. 지난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럽도 장벽 건설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지난해 12월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올해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될 전망이다. EU와 영국이 설정한 올 연말까지의 이행 기간 동안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미래 관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이 EU와 EU 단일 시장, 관세동맹을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단행할 경우 영국과 다른 나라와의 연간 교역 규모가 1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드 브렉시트 시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영국이 개별 국가들과 별도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WTO 체제에 편입된다. 영국이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EU 관세 체제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이 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이 휘청거리는데도 잡아줄 존재가 없다. WTO 출범 24년 만에 분쟁 해결의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적어도 3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이 신규 위원 임명을 최종 거부하면서 위원이 1명만 남은 상태다.

국가들의 '통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중재 기구의 유명무실 속에 자유무역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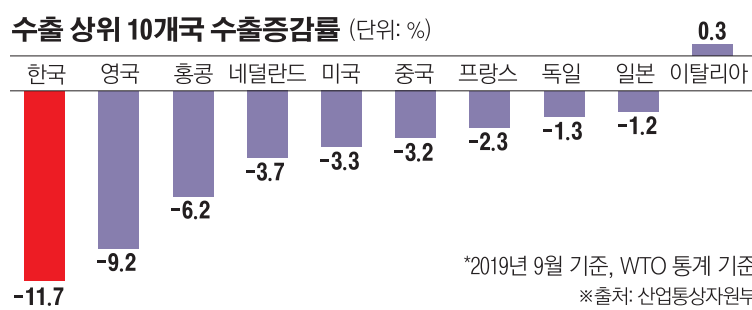
김서영 기자 0jung2@

## 무역 의존도 높은韓에 '직격탄'... 시장 다변화로 살길 모색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보이지 않는 장벽(Wall)' 건설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은 한국은 2020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유무역주의 수호를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례없이 어려운 통상 환경과 마주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해결 체제의 위기까지 겹쳤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수출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것도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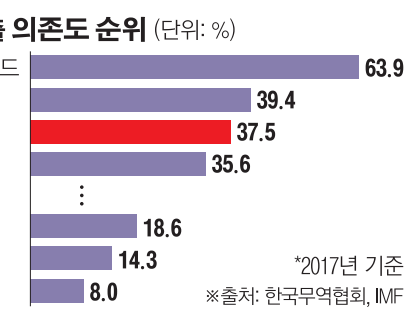
###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감소율 최고... 美·中 의존도 낮춰야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 "WTO 정상화 노력... 다자주의 강화 앞장"

향이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은 한국이 -11.7%로 가장 높았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대부분이 감소 추세라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은 대부분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갔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도 불안감을 키웠다. 일본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한국에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수출 규



제 조치를 했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당한 근거 없이 보호무역을 남발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문제는 올해 역시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수장인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을 우려했다.

정부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의 다층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

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서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등 WTO를 정상화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문 대통령 “檢, 수사 관행·조직문화까지 바꿔야”

### 추미에 법무장관 임명장... “검찰, 민생·인권 중심 변화” 추 “명의, 여러번 찌르지 않아”... 검찰 고위직 교체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법무행정 개혁이)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에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찌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찌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추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달 중순 이뤄질 검찰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명분은 ‘승진 인사’지만 고검 차장급으로 이동시켜 수사부서에서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검찰 합패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수사의 큰 축인데 바뀌면 인수인계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변갯불에 콩 구워먹듯 딱딱 해지운 것”이라며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김보름 기자 fullmoon@

가 ‘추다르크’발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당 시 공적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웅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 “정치 바꿔야”...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

### ‘준연동제 유리하다’ 판단한 듯

다당제를 통한 새 정치를 외쳐왔던 안철수(사진) 전 의원이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4·15 총선에서는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로 연동형 선거제가 적용되는 만큼 안 전 의원의 정계복귀가 선거판의 지각 변동을 예고할지 주목된다.

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뒤흔든 장본인이다. 그는 같은 해 2월 천정배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고, 민주당이 텃밭으로 여기던 호남 표심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안 전 의원은 정치 입문 후 줄곧 거대 양당제를 비판하며 다당제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초심 그대로 간직



한 채 열심히 활동하며 다당제를 이뤘고 여러 개혁에 앞장섰지만 부족한 탓에 기득권 양당 벽을 허물지는 못했다”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준연동형 선거제 실시가 안 전 의원의 정계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는 많지 않아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쪽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의석은 38석이었지만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25.54%)보다 높은 26.74%였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 소속인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활동할지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행보 역시 가능성이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 유은혜·김현미 장관 ‘총선 불출마’

### 야당 중진 여성규·한선교도

여당 소속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현직 장관 4인이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현직 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박 경기부 장관·김 국토부 장관은 참석하나, 진 행안부 장관은 일정 관계로 불참한다.

진 장관과 박 장관은 입각 당시 불출마 의사를 청와대에 표명했으며,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높아진 청문회 문턱에 따른 후임자 물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마 의지를 접었다.

네 사람의 불출마 발표에 따라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5선), 백재현(3선), 이철희·표창원·이용득(조선) 의원 등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에 법무

부 장관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내각으로 향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여성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대표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고, 자유주의 빅 텐트 아래 모여 당명과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4선 한선교 의원이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출마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는 시간적, 능력으로 볼 때나 당의 사정으로 볼 때나, 제일 중요한 이 나라의 사정으로 볼 때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맞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또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었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납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똑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씬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노인이 끌어올린 고용지표, 올한 '40대 일자리'가 관건

### 작년 1~11월 취업자 28만명 ↑ ... 노인·여성 증가 40대 감소 올해 재정 일자리 20만개 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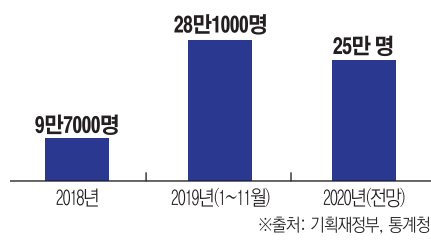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는 데 더해 건설업 투자 부진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평균 2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7000명)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감소에도 60세 이상 및 30대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지표를 끌어올렸다.

다만 올해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5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마저도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이탈했던 40대와 경력단절 상태의 30~40대 여성의 취업 확대를 전제로 한 숫자다. 실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취업자가 유지만 돼도 다행인 상황이다.

올해 고용지표의 가장 큰 하방 위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감소 폭이 지난해 5만6000명에서 올해에는 23만1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 일자리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년 동월 대비)



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량을 각각 10만 개, 9만5000개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려면 재정 일자리 증가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을 메우고, 취업자 증가분을 모두 기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확대

되고, 제조업 부진이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 요인이다.

반면 고용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 기존 도소매·제조업에서 이탈한 40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이동을 통한 재취업도 여의치 않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도 숙박·음식점업에 쏠려 이를 통해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영훈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할 것이고, 인구효과도 작용할 수 있다"며 "단 서비스업 쪽에서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제조업은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해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은 반도체 쪽에서 부진이 이어

지고 있는데, 그나마 고용유발계수가 큰 자동차·조선업 등이 좋아져 작년보다 고용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며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경자년 첫 거래일 불안한 증시. 경자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1.02%) 내린 2175.17에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4.19포인트(0.63%) 오른 674.02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오른 1158.1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 '고순도 불산' 국산화 성공

### 솔브레인, 대량생산 능력 갖춰... 정부 "소부장 지속 지원"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국내 자립화에 성공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첫 번째 국내 자립화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순도 불산액 공급안정성 확보에 성공한 솔브레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소부장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솔브레인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불산 공장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해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12 Nine)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일본 수출규제 이전에는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주로 일본산 고순도 불산액을 사용했으나 솔브레인이 생산물량을 확대,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

급하기 시작하면서 불산액 대한 국내 공급안정성이 확보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왔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액 조기 생산능력 확충은 대표적인 성과"라며 "높은 난이도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불산액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솔브레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창 솔브레인 대표도 "신·증설 공장이 조기 완공하고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등 범정부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회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국내생산능력 확충, 투자 유치, 국내 신규 공급망 구축, 현장으로 해결 등을 추진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이주열 "성장·물가 지난해보단 나아질 것"

### "급격한 경기회복 쉽지 않아... 반도체값 올 중반 상승 추가 금리인하, 경기·물가·금융안정 등 지켜본 뒤 판단"

"성장률과 물가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돼 있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 이내로 크다는 점에서 급격한 경기회복은 쉽지 않다. 급반등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 기자회견에서 가진 신년 다과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엔 어려웠다.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도체가격도 급락했다. 대외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아니나 이 두 요인이 (경제 부진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며 "올해 미중 분쟁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값도 시기를 가늠기 어려우나 올해 중반 정도쯤 가격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이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와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를 밑도는 물가상황을 봤을 때 향후 방향성은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 인하에 대한 결말들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를 보면 완화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금리로 대응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많은 것을 봐야 한다. 물가안정이 주된 목표이긴 하나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경기도 봐야 한다.



(추가 인하 시) 효과와 부작용도 있다. 선택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어떤 게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성장률 2%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12월 지표가 중요하다. 12월 실물지표도 다음 주쯤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새해를 맞아 우려와 기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뤄 경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 저물가 우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려를 벗었으면 싶다"고 답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수돗물 사용량으로 고령·장애인 가구 '안전' 살핀다

### 수공, 실시간 원격 점검 후 알림 2022년 161개 지자체로 확대

#2018년 8월 경북 고령군에 홀로 사는 김모 할머니는 물 사용량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복지기관에 알려 골절상으로 거동할 수 없었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실시간 수돗

물 원격점검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으로 확대 보급한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2017년 경북 고령군 30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지난해 18개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이를 2022년까지 161개 지자체 읍면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지하철 같은 버스 'S-BRT' 시동

### 인천·성남·세종 등 시범사업 전용도로 활용 지·정체 없어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등 5곳에 이르면 2024년부터 지하철 수준의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Super Bus Rapid Transit)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한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 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고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지하철 수준의 속도(평균 35km/h)와 정시성(출·도착 2분 이내)을 보장한다.   
정류장도 폐쇄형·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 승하차도 가능하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한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고 정류장 내 사전요금 지급시스템,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표시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 기간에 1/10이 채안되는 비용이 들어 효율적이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국내 도입되는 S-BRT는 4개 등급(Gold, Silver, Bronze, Basic) 가운데 최고 수준인 Gold 등급의 BRT"라고 설명했다.

구간은 인천계양·부천대장(김포공항역~부천종합운동장역, 17.3km), 창원(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3km), 인천(인하대~서인천, 9.4km), 성남(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 5.2km), 세종(반곡동~한별리, 22.9km)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지니야 우리  
민준이 칭찬해줘!”



“우리 **민준**이 치카치카 정말 잘하네!”

핑크퐁의 목소리로 우리아이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세요



GiGA Genie × 핑크퐁

# 핑크퐁 칭찬하기

스마트한 칭찬 육아법

핑크퐁의 목소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거나 타일러 줄 수 있는 기가지니 핑크퐁 칭찬하기

Copyright © Smart Study Co., Ltd. All Rights Reserved.





# 글로벌 금융권

## 마이너스 금리 IT업종과 경쟁

# 올해 '2대 파고' 덮친다

###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카드 만지작...은행 수익성 악화 전망 '알리페이' '슈퍼앱' 등 시장 파고든 핀테크와 경쟁 치열할 듯

올해 글로벌 금융권에 2개의 커다란 파도가 덮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글로벌 금융권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비둘기' 모드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타 업종과의 경쟁까지 치열해져 새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제로(0)'%로 높이면서 약 5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부채 급증과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비둘기 파 모드'는 올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다. 새해는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는 않더라도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준이 지난달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공개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총 17명 중 무려 13명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스웨덴과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쳤던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덴마크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4곳은 스웨덴의 이탈에도 마이너스 금

리를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BOJ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년 연속 100조 엔(약 1064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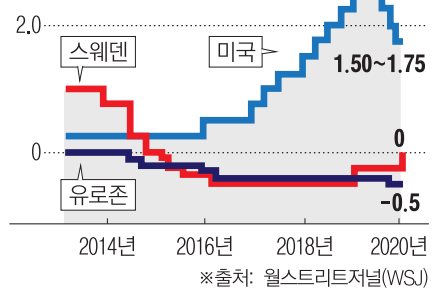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하는 등 신중국 중앙은행도 경기부양 신호탄을 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은행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전국은행협회가 공표하는 일본 115개 은행의 실질적 업무 순이익은 2018년 3조240억 엔으로 3년 만에 30% 급감했다. 지난해는 단기금리는 물론 장기 금리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일본 은행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미국이 절대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서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핀테크'를 내세우며 IT 업종이 은행 영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

미국과 스웨덴, 유로존 기준금리 추이 (단위: %, 1월 1일 기준)



에서 알리페이가 이미 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야후를 운영하는 Z홀딩스와 라인이 목표로 하는 '슈퍼앱'이 금융산업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야후와 라인 고객은 단순 합산으로 1억 명이 넘으며 유력한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와 '라인페이'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영업 직원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IT 기업들의 플랫폼머는 다가오는 압도적 편의성을 무기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1만 8000명 감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올해도 이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워런 버핏 '투자 축' 무너졌나 '티파니' 인수 제안에 퇴짜

### 버크셔 유동성 넘쳐나지만 대형 M&A에 소극적 자세 결국 LVMH에 넘어가자 투자자들 '좋은 기회 놓쳐'



&P500대비 버크셔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20.5%포인트였는데, 이는 10년 만의 최악이었다.

대형 인수·합병(M&A) 건수를 애타게 찾던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국의 유서 깊은 주얼리 업체 티파니를 손에 넣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퇴짜를 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티파니는 지난해 세계 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에 부채 포함 총 166억 달러(약 19조 원)에 매각되기 전 버핏에게 자사를 인수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티파니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항상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됐던 버핏이 인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의외였다고 FT는 평가했다. 버핏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티파니가 흔들렸을 때 2억5000만 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사들여 회사가 위기에 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또 티파니를 인수했다면 버크셔가 30년 전 손에 넣었던 네브래스카 소재 보석 유통업체 보르쉐임을 보완하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버핏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버크셔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버크셔 클래스A주는 작년 주가 상승률이 11%로, 뉴욕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가 3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성적을 냈다. S

투자업체 에드워드존스의 짐 새너헨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좌절하고 있다"며 "버크셔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버핏은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할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당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버핏이 M&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버크셔의 현금 보유고는 지난해 1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S&P500에 속한 기업 수십 곳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대형 M&A를 통해 성장해온 버크셔에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할 곳을 못 찾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버핏의 투자 감각이 떨어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FT는 2015년 320억 달러에 프리시전캐스트파츠를 인수한 이후 4년 넘게 버크셔가 대형 M&A 성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저평가된 기업을 사냥해온 '가치투자자' 버핏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버핏은 지난해 2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장기 전망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업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다"고 한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해 첫날 '자카르타 물폭탄'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람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골목길을 헤치며 걸어오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사해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쏟아진 비로 인해 최소 21명이 저체온증, 산사태, 감전 등으로 사망했다. 자카르타/신화연합뉴스

## WSJ "美 FDA,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계획"

### 담배·박하향은 제외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카트리지 기반의 가향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 FDA가 이르면 3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체화된 액상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 증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청소년의 흡연율과 일반 담배 흡연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유독 전자

담배 흡연율은 2016년 11%에서 지난해 28%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탱크(open-tank)'형은 이번 판매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탱크는 사용자가 액상 니코틴을 직접 혼합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담배인데, 청소년들이 이 오픈탱크형보다는 미리 액상이 채워진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예외 사항에 대해 WSJ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 정부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등 업계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자담배 판매금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담배업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주(州)에서는 전면적인 판매금지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며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은 청소년들의 베이핑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미 의회는 담배 및 전자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만 18에서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변효선 기자 hsbyun@

## 구글, 의사 뛰어넘는 '유방암 진단 AI' 개발

### 엣과학지 '네이처' 발표... 도입 땀 의료진 업무 부담 88% 경감

지난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양자우월성을 처음으로 달성해 세계를 놀라게 한 구글이 이번에는 의사만큼 정확한 유방암 진단 인공지능(AI) 개발에 성공해 화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인용, 구글 산하 구글헬스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AI가 기존에는 놓쳤던 암을 잡아내는가 하면 실제로는 유방암 환자가 아닌데도 잘못 진단하는 비율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영국인 여성 2만5000명과 미국인 여성 3000명이 받았던 유방조영술 결과를 두고 AI가 유방암 진단을 내리도록 테스트했다. 유방조영술은 X선 촬영을 통해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는 기법이다. 테스트 결과, AI가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사례가 기존 의료진보다 미국이 9.4%, 영국이 2.7% 적었다. 반대로 실제로 유방암 환자가 아닌데,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각각 5.7%, 1.2%씩 낮았다. 아울러 AI는 6명의 전문의와 500개의 유방조영술 결과를 두고서 유방암 진단을 한 또

다른 실험에서도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구글이 개발한 이 AI는 앞으로 전문의들이 보다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명의 의사가 유방암 진단을 내려야 하는 영국에서는 이 AI가 인력 부족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AI를 실제 현장에 도입하게 될 경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잠재적으로 88%가량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에게 유방암은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미국암학회(ACS: 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미국 여성 8명 중 1명은 평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매년 미국에서 이뤄지는 약 3300만 건의 유방 X선 촬영 중 유방암을 놓치는 비율은 20%나 된다. 암이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판독되는 '허위 양성' 때문에 재검사나 조직생검(biopsy·유방 조직 샘플을 떼어내 검사하는 것) 등 불필요한 검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효선 기자 hsbyun@



# 사장단 인사 '안갯속'... 삼성생명 '경영전략회의' 무기한 연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영향  
실속 초점... 경영 혼란 돌파 의지  
각 실별로 경영전략회의 대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영전략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삼성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가 여전히 안갯속인 영향이 크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실속'을 중시하겠다는 의중도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올해 경영전략회의를 그룹 사장단 인사 지연을 이유로 연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각 실별로 경영전략회의를 대체했다"며 "현상황에서 경영전략회의 개최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생존을 넘어 초격차'라는 모토하에 시장 지배력 확대, 손익 기

반 견고화, 미래 준비에 대한 발표 후 전자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CFO가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번 전략회의의 운영비용을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회사의 비용 절감 의지를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 영향으로 사장단 인사가 지연되면서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삼성 임원인사는 11~12월께 이뤄진다. 이번 인사는 2월 이후에나 단행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의 축소는 혼란스러운 경영 상황에서 실속을 챙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영전략회의는 직원들이 한데 모여 회사의 경영방향을 공유하고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그룹인사가 지연돼 조직 개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경영

전략회의 개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올해 위기 극복을 넘어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지난해 성과가 미진한 7개의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단의 단장을 사내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최근 3개년 영업 실적과 KPI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의도, 춘천·원주, 은평, 구리, 중동, 경북 북부, 충주 등) 7개의 전략지역단을 선정하고 지역단장 및 파트장, 파트장 유경험자, 파트장 양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게 열어줬다.

특히 단장에서 지점장 또는 단순 지원업무로 좌천된 직원들의 지원이 많았으며, 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연 기자 sjy@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

## 수수료 인하 여파·간편결제 확대... 카드사 '체질 개선' 이구동성

### 업계 CEO 신년 메시지

카드업계가 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와 간편결제 확대라는 두 가지 난제와 싸우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목소리로 올해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카드사 대표들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카드사 경영환경 전망이 어두운 만큼 체질 개선을 통한 위기 돌파를 주문했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앞으로 10년간 업계 1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다. 임 사장은 경

'회주의 해'를 맞아 회주와 같은 지혜와 생존력을 갖추자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회주의 해'로 회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회주의 지혜와 생존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금융산업 서비스 제공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고 정보는 개방적 금융정책으로 변혁을 가속하고 있으므로 본업과 신사업을 망라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구성원을 향해서는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사자성어 '봉산개도 우수가교'처럼 수많은 도전 앞에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그로 인해 교훈을

**임영진** '딥 웨이브' 전략 밑바탕 차별화된 고객 경험 확산  
**원기찬** 미래 환경 맞춤 역량 확보 '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  
**이동철** 본업·신사업 등 비즈니스 혁신... 업계 변화 발맞춤  
**김창권** 제2 창사 맞아 '프로액티버' 자세로 위기 돌파 최선

영 방향에 대해 "올해는 '딥 웨이브' 전략 방향을 통해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흐름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시장 전제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올해 신한카드의 새로운 성장 역사를 만들어 갈 또 다른 10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나를 극복하고 끊임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극기상진'을 화두로 제시했다. 임 사장은 "극기상진의 마음으로 어제의 신한카드를 뛰어넘어 딥웨이브를 주도하고 1등에서 일류로 새롭게 변하자"고 말했다.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비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원 사장은 이날 사내 방송에서 "올해는 경기 장기침체 국면 돌입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과 역량을 확보하고 개방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혁신하는 삼성카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이동철 사장은 올해

연고 더욱 힘을 내어 앞으로 나가는 KB국민카드가 되자"고 당부했다.

롯데그룹을 떠나 새 주인을 맞은 롯데카드는 '제2의 창사'를 언급하며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이날 "롯데카드는 올해 제2 창사의 각오로 새 출발을 맞이했지만,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어려울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외부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프로액티버'의 자세로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처럼 각사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위기를 강조한 것은 카드업계가 느낀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대외환경뿐만 아니라 정부도 간편결제에 힘을 싣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윤종규 회장, 새해 첫 행보 '콜센터' 방문  
윤종규(왼쪽에서 3번째) KB금융그룹 회장이 2일 KB국민은행 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 씨티銀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인하 연장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연말까지 진행한 특별 금리인하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씨티은행은 카카오페이의 '대출비교'를 통해 씨티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청 절차에서 카카오페이가 우대코드를 입력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특별 금리인하 혜택을 1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벤트 기간 해당 고객들에게 기존 카카오페이 제휴금리 0.5%포인트(P)에 특별판매 우대금리 0.3%P를 더한 0.8%P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이벤트 연장 기간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 최저 연

2.6%(2일 기준)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씨티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온라인 신청 시 연 0.5%P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인 1월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모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월 소득의 최대 27배까지 가능한 넉넉한 한도를 번거로운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입금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빠른 실행으로 이용 고객이 꾸준히 늘



고 있다"며 "최대 1.3%p의 혜택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 기존 이벤트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 우리銀, 예금 가입기간 절반 채워도 '우대 금리'

우리은행은 장기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예금은 가입 기간의 절반을 채우고 중도해지 한 경우에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준다.

금리는 1년은 연 1.9%, 2년은 연 2.0%다. 여기에 △거래 기간에 따라 최대 연 0.2%포인트(p) △직전 연도 정기예금 가

입이력 보유 시 연 0.1%p △첫 거래 또는 비대면 채널 이용 가입 시 연 0.1%p를 더한다. 1조 원 한도로 판매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29일까지 이벤트를 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바다프렌드 안마의자, 삼성 에어드레서, LG공기청정기 등을 제공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생보사, 눈물의 부동산 매각

▶1면서 계속

K-ICS에서 정한 부동산 위험은 부동산 가격 수준과 변동성 및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현행 지급여력비율(RBC)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을 8%로 보고

있지만 K-ICS에서는 25%로 본다라는 것이다. 예컨대 100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금은 8억 원의 준비금을 쌓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25억 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사육을 팔아 현금으로 유동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운용 수익률도 낮아져 보험사들은 부동산을 매각해 보험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수익성 하락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사법부 숙제’ 끝난 이재용 “우리의 사명은 상생”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후보  
13일까지 주주 추천받기로

## 반도체 현장서 새해 첫 업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세 가지 ‘숙제’ 마감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부회장이 새해 경영 메시지로 ‘상생 성장’과 ‘잘못된 관행 폐기’를 던졌다.

이 부회장은 새해 첫 경영 행보로 2일 화성사업장 내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찾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기술을 보고받고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사장단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최근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 증대와 높아지는 사회적 책임 요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오는 17일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나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술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며,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견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

재판부가 SAMSUNG에 주문한 사항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준영 판사

- 주요 과감한 혁신
- 핵심 대규모 투자 통한 초격차 유지
- 주요 내부 준법감시제도
- 핵심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 내정
- 주요 재벌체제 폐해 시정
- 핵심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포기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2일 화성사업장 내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이웃과 나누고 함께 성장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 세계 첫 ‘3나노’ 기술 점검

## 국정농단 재판부의 3가지 주문 준법감시위 구성 등 실행 방침 짚을 ‘총수의 선언’ 준비

나까”라고 물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등 세 가지 숙제를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삼성 내부에서 각 사안에 대해 큰 가늠을 잡고 구체적인 실행내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는 세 가지 당부 가운데 먼저 ‘과감한 혁신’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 및 실행을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약 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거센 추

격을 뿌리치기 위해 2025년까지 ‘QD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에 총 13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부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준비도 거의 마무리했다. 삼성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1명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체제 폐해 시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요구한 ‘이재용 삼성 총수의 선언’에 대해서는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삼성가(家) 롤모델로 알려진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 회장과 만나 양 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럽 최대 규모 그룹 중 하나인 발렌베리그룹은 오너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마르쿠스 회장에게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비롯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 준법과 상생경영 관련한 혁신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모비스가 주주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한다.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업가치와 주주의 권익을 높이고, 급변하는 미래 시장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 보호 담당으로 활동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달 13일까지 추천받겠다고 2일 밝혔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현대모비스 이사회 내 위원회로, 주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사외이사 1명을 주주권익 보호 담당으로 선임하고 있다.

사외이사 주주추천 제도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주주 대표성 강화가 목적이 다.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사외이사를 선임해 투명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유창욱 기자 woogi@

## LG 올레드 ‘TV 업계 최초’ 할리우드전문가 기술우수상

LG전자는 LG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최근 ‘할리우드전문가협회(HPA)’로부터 ‘기술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HPA는 콘텐츠 제작, 배포, 보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2005년부터 예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과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LG전자는 “HPA로부터 기술 우수상을 받은 TV는 LG 올레드 TV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LG 올레드 TV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색 재현율을 구현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LG 올레드 TV는 정확한 색 표현력을 인정받아 할리우드에서 표준명암비(SDR)와 고명암비(HDR) 영상 참조용 TV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BMW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전기차 i3의 어반 스위트(Urban Suite) 모델을 새로 선보인다. 2일 BMW에 따르면 BMW i3 어반 스위트는 휴식용 발판이 장착된 인락한 시트,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크린, 개인용 사운드 존(Sound Zone)을 갖춰 실내를 호텔처럼 구성했다. 사진제공 BMW

## 현대기아차, 올 판매 목표 754만대 확정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판매 목표를 754만 대로 확정했다.

현대차 판매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차를 쏟아낼 기아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2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각각 457만6000대와 296만 대로 확정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2.22% 감소한 숫자지만, 기아차는 지난해보다 판매를 1.37%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대차는 올해 내수시장에서 작년보다 2.81% 증가한 73만20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차는 올해 해외 판매가 작년보다 3.13% 감소한 384만

400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판매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아차 사정은 반대다. 먼저 내수에서는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기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올해 내수판매가 작년보다 1.89% 감소한 52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기아차는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296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외 판매는 지난해 719만3000대보다 약 4.8% 증가한 총 753만6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SK이노 ‘미래차 패키지’ 선보인다

### 배터리·소재·유탄유 묶어 CES서 ‘SK 인사이드’ 소개

SK이노베이션은 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을 모아 ‘SK inside’를 선보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는 이번 CES를 통해 올해 경영 방향의 첫 번째인 고객 혁신의 방향성을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자회사와 함께 ‘미래 E-모빌리티’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배터리와 초경량·친환경 소재 및 각종 유탄유 제품 등을 패키지로 묶어 ‘SK Inside’ 모델을 만들었다.

여기에 공동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등 그룹 관계사들과 같이하는 ‘SK inside’의 시너지도 창출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 2020에서 움직이는 모형 자동차와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최첨단 방식으로 조합해 미래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차별적 경

쟁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배터리 기술과 소재를 공개한다.

SK이노베이션만이 가진 초장폭 셀 기술과 세계 최고의 고(高)니켈 제조 방식을 통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효율을 극대화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양극재 NCM 9 1/2 1/2, NCM 811 기술 등을 전시한다. 또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출력을 높이는 핵심소재인 LiBS(리튬이온분리막) 기술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첨단 배터리가 있어 가능한 전기차 이외의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모형을 만들어 전시할 방침이다.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항공, 기차, 선박 등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다.

SK종합화학은 친환경, 초경량 자동차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소재를 전시한다. 50년 넘는 석유화학 분야 R&D 역량의 집합체로, 경량화된 고강도 차량 구조물, 대시보드, 차량용 범퍼, 도어트림, 타이어 등 미래차에 적용 가능한 소재들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휘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FCW(Flexible Cover Window)를 전시한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10년 이상 노후 차량 고객 SM6·QM6로 바꾸면 할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에게 노후차 교체 특별 할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2020년형 SM6와 THE NEW QM6 구매 고객 중 10년이 넘는 노후차를 보유한 경우 5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르노삼성차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은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8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0년형 SM6 GDe 또는 LPe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250만 원 상당의 구매비(옵션·용품·보증연장) 또는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SM6로 교체하면 최대 3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LPe 렌터카용은 50만 원 상당의 구매비 지원과 현금 30만 원 지원 중 하나를, THE NEW QM6 구매 고객 역시 구매비 지원(GDe 150만 원·dCi 100만 원·LPe 70만 원 상당) 또는 현금 50만 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20년형 SM6와 THE NEW QM6 할부 구매 시 최대 36개월간 금리 연 1.9% 또는 최대 72개월간 금리 연 3.9%의 저금리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2019 농촌경관사진공모전 | 대상 조훈도 '사과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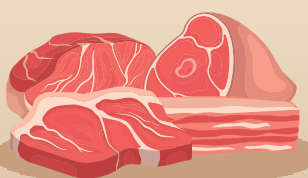
농업·농촌·농협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

# 뉴트로 감성여행

전통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대

우리 농촌으로 떠나는 여행이  
더 새롭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생활미식  
**꿀꿀할때  
돼지고기**



풍부한 영양과 맛으로  
기본까지 좋아하는 돼지고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 한화 '태양광 발전' 관리 일원화

새법인 '해모뎀태양광'으로  
자회사 기존 발전시설 통합  
큐셀, 한화솔루션으로 출범



김승연 회장 김동관 부사장

한화그룹의 미래 전략사업인 '태양광' 부문이 올해 사업 효율성 극대화와 기술 격차 확대를 통해 국내외 태양광 시장에서 '대체 불가한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2일 한화솔라파워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합작해 세우는 특수목적법인(SPC) '해모뎀태양광'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합할 예정이다.

한화솔라파워의 자회사인 해돋이태양광이 운영 중이던 경남 창원시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과 또 다른 자회사인 해나라태양광이 관리하던 경북 상주시와 전남 영암군의 발전 시설을 해모뎀태양광으로 이전한다.

이번 발전 시설 통합으로 태양광 자

회사들은 "사업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국내 태양광 사업의 확장을 기대했다.

해모뎀태양광은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합하고 새롭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해 놓여온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발전 공기업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사업개발 전문기업의 노하우가 합쳐져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해의 태양광 사업도 올해 사업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기술력을 확대하며 최대 경쟁자인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한화케미칼과 첨단소재와 합병돼 '한화솔루션'으로 재탄생하는 한화큐셀은 신소재 개발, 유럽·일본에서 에너지 리테일사업(전력소매사업) 강화 등을 통해 중국 업체와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화케미칼은 1일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해 한화솔루션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특히 태양광 부문을 이끌어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한화솔루션의 전략 부문을 이끄는 만큼 합병에 따른 시너지와 더불어 성장도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한화케미칼은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한화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건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을 처리했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이구영 대표, 큐셀 김희철 대표, 첨단소재 류두형 대표 등 3개 부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성명장'들이 2일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권 명장, 김기남 부회장, 배종용 명장, 문영준 명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 반도체 기술 최고 전문가 '삼성명장' 올해 4명 선정

전자 3명·전기서도 1명

삼성 2일 최고 기술전문가 '삼성명장'을 4명 선정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에서 각각 3명, 1명이 뽑혔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제조 관련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 장인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명장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처음 4명을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제조기술, 품질 등의 분야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술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레이아웃(반도체 패턴 회로설계)' 분야까지 선발 분야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전문 역량,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조기술·설비·레이아웃 분야에서 각 1명씩 삼성명장을 선정했다.

제조기술 부문에서 선정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문영준 명장(55)은 1995년 입사해 24년간 제조기술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밀도 실장기술 전문가다.

문 명장은 특히 약 39만 개의 마이크로 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1개의 기판에

고속으로 실장하는 대면적 레이저 전자공법 등 실장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에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글래스에 필름을 부착하는 대신 직접 인쇄하는 공정을 개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디자인 차별화에도 앞장섰다.

설비 부문의 메모리사업부 배종용 명장(50)은 반도체 메탈 공정 박막증착(ALD) 설비 전문가다.

반도체 칩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고도의 박막증착 기술이 필요하다. 배 명장은 이와 관련된 메탈 필름 박막기술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레이아웃 부문에서 뽑힌 파운드리사업부 이승권 명장(53)은 레이아웃 최적화 기술을 통해 제품 성능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전문가다.

삼성전기의 최고 명장으로 선발된 정현주 명장(50)은 MLCC(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제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MLCC 기술 전문가다.

정 명장은 소형기, 인쇄기 등 MLCC 주요 설비와 자재를 국산화했고 적층 면적 대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ULFATE(황산염)·함성색소·인공향  
함성방부제·실리콘오일

**5**  
無  
첨가

Pure of Love.

내 아이 만큼은  
깨끗하게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것 만큼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착한 성분만을 담은 오무오무로  
건강한 반려생활을 시작하세요

Pure of Love.  
**omu omu**  
www.omuomu.co.kr

## E1, 25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올 임금 문제 사측에 위임  
노조 "비전 달성 밑거름 되길"  
구자용 회장 "勞經 새 이정표"



직원들에게 축하 케이크와 카드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날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상생과 화합의 노경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1은 1996년부터 25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뤘다.

E1 관계자는 "구자용(사진)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속 소통하며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덕"이라고 평했다.

구 회장은 분기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경영 현황 설명회를 열어 회사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후 참석자 모두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킴이팅도 진행한다.

평소에도 구 회장은 직원들과 사내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는다. 승진한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구자용 회장은 "25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으로 미래 지향적 노경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랑스러운 노경 문화를 이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E1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이통3사 CEO 새해 전략 '5G·AI·디지털 혁신'

**박정호 SKT 사장** “모든 업무 AI 도입... 미래혁신 주도할 것”  
**황창규 KT 회장** “5G 기반 AI기업 차별화... 글로벌 1등 목표”  
**하현희 LG U+ 부회장** “전 사업영역서 디지털 혁신 적극 추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CEO가 올 한 해 실적 상승 전략으로 '5G·AI·디지털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의 미래 먹거리 사업 확장에 중점을 뒀다.

황창규 KT 회장은 AI를 전면에 내세울 한 해 '글로벌 1등 그룹'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2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2020년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가가

니 200만 돌파, IPTV 800만 돌파 등의 성과를 기반 삼아 2020년에도 KT의 도전은 계속된다"며 "5G 기반 AI 전문기업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글로벌 1등 그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5G 기반의 AI 전문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어디서나 AI를 누리는 세상을 주도해야 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고객에게 사랑받는 국민기업, 미래가 기대되는 글로벌 1등 KT그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AI'를 올해 전략 사업으

로 꼽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SK 브로드밴드, ADT캡스, 11번가 등 SK ICT(정보통신기술) 패밀리사가 참여한 신년회에서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및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자"며 "MNO와 'New Biz'를 양대 성장엔진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ICT 복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ICT 분야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큰 변화에 대한 과실을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사장은 "AI·DT(디지털 전환)·5G 등의 분야에서 현재를 뛰어넘고 확장하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AI와 DT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등 비즈니스는 물론 업무 방식 및 문화까지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혁신'을 경영 목표로 세웠다. 하현희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모든 사업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고객 경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5G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고, CJ헬로를 성공적으로 인수했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 사업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전 사업장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UI·UX 역량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 진행 성과를 CEO와 각 부문장이 공유하는 'DX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DX'는 디지털 전환의 약어로, 'DT'로도 쓴다. 이재훈 기자 yes@

## IT서비스 업계 “디지털 전환 대처하며 성장 총력”

국내 IT서비스 업계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변화를 예고했다. IT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존 서비스에 머무르기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



김영섭 LG CNS 대표



박성하 SK(주) C&C 대표

장하는 기술과 고객의 비즈니스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예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서비스사업 부 중심의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사업 및 활동 범위를 더욱 빠르게 넓혀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 인력 파견 형태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적용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  
 “글로벌 사업 모델 적극 발굴”

**김영섭 LG CNS 대표**  
 “기반기술 숙련도 더욱 높여야”

**박성하 SK(주) C&C 대표**  
 “디지털 중심의 BM 혁신 필요”

김영섭 LG CNS 대표는 신년 경영 방침을 역량 전문성의 지속적 혁신과 사업방식의 근본적 혁신으로 설정했다.

김영섭 대표는 "기반 기술의 숙련도를 더욱 높이고 IT 신기술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빠르게 축적해야 한다"며 "새롭게 등

2일 SI업계에 따르면 삼성 SDS, LG CNS, SK(주) C&C는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처하며 올해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삼성SDS는 올해 글로벌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는 "2020년 경제 환경과 IT 시장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경영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타깃팅하고,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사업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지 회사에 대한 투자 및 M&A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CNS는 올해 사업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쿠쿠 '트윈프레스서 2.0 마스터셰프'



쿠첸 '로봇쿠커' 마스터 타입

## 주방가전 '프리미엄' 승부수

주방가전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친근한 이미지의 중견 주방가전 업체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는 모양새다. 윈 히트 원더(One-Hit Wonder) 단일 상품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에서 벗어나 멀티 히트 원더(Multi-Hit Wonder)로 도약을 꾀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표 윈 히트 원더 기업인 휴롬은 이달 9일 '휴롬스팀'을 출시한다. 휴롬스팀은 찌는 방식을 적용한 멀티쿠커로 가격은 50만 원 내외가 될

의 이창우 이사와 원덕연 R&D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국내 1위 전기밥솥 업체인 쿠쿠는 지난해 9월 프리미엄 밥솥을 출시했다. 쿠쿠의 프리미엄 밥솥 출시는 2년 만으로 기존 트윈프레스서의 멀티쿠커 기능을 강화한 '트윈프레스서 2.0 마스터셰프'를 선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마스터셰프 '메트블랙' 모델을 CJ 오쇼핑 방송에서 론칭했다. 방송에서 메트블랙 모델은 목표 판매치의 36%를 초과 달성했다.

쿠쿠 관계자는 마스터셰프 제품이 기존 밥솥 디자인에서 과감히 탈피한 디자인을 적용해 감성과 트렌드를 더

휴롬, 찌는 방식 멀티쿠커 '휴롬스팀' 출시  
 쿠쿠, 50만~60만원대 프리미엄 밥솥 선포  
 쿠첸, 요리 편의성 높인 150만원대 로봇쿠커

예정이다. 휴롬은 덴마크 가구 브랜드 '헤이'와 손잡고 이날 오후 론칭 행사를 진행한다. 휴롬 관계자는 "프리미엄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만큼 헤이 고객들을 초청해 제품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롬은 2017년 6월에도 멀티쿠커를 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휴롬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제품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했고,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멀티쿠커 외에도 원액기 외에 티마스터, 스쿼저 등의 제품군도 보유하고 있으나 원액기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수년 만에 신제품 론칭 행사를 여는 만큼 이번에 출시하는 스팀쿠커가 메인 제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론칭 행사에는 휴롬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스터셰프는 6인용, 10인용 2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50만~60만 원대다.

쿠첸은 지난해 11월 로봇쿠커를 출시했다. 마스터 타입과 워 타입 두 종류이며 마스터 타입은 150만 원대로 프리미엄 제품이다. 마스터 타입은 온도, 시간, 찌는 속도, 찌는 방향을 설정해 재료만 넣으면 요리가 자동 완성된다. 볶음, 조림, 국, 죽 등 한식에 최적화됐으며 분쇄, 반죽, 조리도 가능하다. 쿠첸은 지난달 롯데백화점 본점 입점을 시작으로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망 투자 세액공제 1→2% 확대... '실감 콘텐츠' 150억 투입 과기부 '5G 사업' 육성 팔 걷었다

### 해외진출 지원 전담조직 신설

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우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는 등록면허세 완화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과기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 원이 들어간다.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5G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체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홀로그래프 기술개발(150억 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 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130억 원)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료 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 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키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고객이 원하는 대로, 뺏속 깊이 혁신하라”

## 유통대기업 총수 신년 키워드

유통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는 '위기'와 '변화'로 요약된다. 내수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으며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저성장과 규제 강화 등 대외 여건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뺏속 깊이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공감·공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4가지 제안을 담았다. 특히 ‘변화’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임직원에게 ‘혁신’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다른 기업보다 한 걸음 더 빠르고, 어제보다 한 뼘 더 나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자”며 “핵심역량은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주



문했다. 아울러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직된 기업문화와 관성적인 업무 습관을 버려야 한다”면서 “5년 후의 모습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고객의 목소리가 더

욱 크고 명쾌하게 들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불만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구조 △고객에 대한 집중 △신규 사업 발굴 등 세 가지 역량을 당부하면서 “고객의 목소리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백화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지선 회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변화’다. 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을 그룹의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자 성장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며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 사고와 실행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 추진 △고객 가치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 변화 △공감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경영 방침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고객 가치에 맞게 사업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역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약화가 지속되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안정적 수익성이 동반되는 ‘혁신 성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Top-Tier(톱티어) 기업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력 사업과 대형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뺏을 꺾는 고통이 있겠지만 진화와 도전을 거듭하며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귀여운 쥐 캐릭터 케이크

신세계백화점이 경자년을 맞아 쥐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선보인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매장 ‘더 메뉴쥬리’는 흰 쥐띠 해라는 콘셉트에 맞춰 크림과 치즈로 장식한 신제품 5종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복덩이마우스(3만9000원)’, ‘럭키마우스치즈케이크(4만 원)’, ‘미니복덩이마우스(7500원)’, ‘뉴이머카롱 세트(5개입 1만5000원/10개입 2만7000원)’로 다양한 장식과 함께 깜찍한 쥐 모양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주류 과세 ‘종량세’ 전환 따라 국산맥주 연초부터 가격인하

롯데칠성음료 피츠·클라우드 출고가 내리며 ‘경쟁력 확보’ 수제맥주업계도 반등 기대감



국산맥주의 종량세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종량세를 적극 수용해 1일부터 국산맥주 ‘클라우드’와 피츠수퍼클리어 출고가를 인하

올해 1월1일부터 주류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중심의 ‘4천 1만 원’ 가격 체계가 국산맥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량세란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 기준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종가세와 차별화된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맥주의 출고가 대비 과세율은 72%에서 3%가량 세율이 줄어든다. 이 경우 리터당 적용세율은 8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종량세 적용으로 종가세 시절 수입맥주와 150원 이상 차이가 나던 주세가 50~60원대로 좁혀짐에 따라 국산맥주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리터당 764.52원이던 기존 주세가 12%가량 인상된다.

키로 했다. 이번 출고가 인하로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ml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16.8%, ‘피츠’는 캔맥주 500ml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13.2% 가격이 인하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수제맥주의 반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의 경쟁 브랜드로 꼽히던 저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는 종량세 도입이 토종 수제맥주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도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의 경우 수입맥주와 이원화된 세금구조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겹치며 수제맥주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편의점발 배달전쟁... 대형마트도 속속 참전

롯데마트 피자 배달 이어 이마트24도 요기요 진출 새로운 판로 확보 승부처



즉시 배달 서비스가 유통업계의 새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출점 절벽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으로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 등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달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마트가 피자 배달 서비스에 나선 데 이어 이마트24 역시 연초부터 ‘요기요’와 손잡고 상품 배달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미 배달 서비스에 진출한 CU(씨유)는 올해 1분기 내로 배달 서비스 가능 매장 목표를 5000곳으로 잡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업체가 배달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출점 절벽’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판매 채널을 추가하면서도 배달료는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유통 공룡들은 배달 품목에 치킨과 피자 등 외식업체 대표 상품까지 포함하면서 영역 파괴를 꾀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7월 2000개였던 편의점 CU의 배달서비스 운영점이 올해 1월 초 3000개까지 늘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배달 서비스에 나선 CU는 지난해 4월부터는 ‘요기요’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특히 이 회사는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

하게 POS 단말기를 통해 매장의 상품입·출고가 자동 입력되는 재고 연동 시스템을 갖췄다.

CU의 배달서비스는 도입 후 고객 편의 향상은 물론 점포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에는 평소보다 이용률이 40%가량 높게 나타났고, 도시락 등 200여 가지 먹거리 상품에서 60여 가지 생활용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하자 배달 서비스 전체 매출도 20% 늘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내로 5000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GS25는 ‘요기요’와 ‘우버이츠’와 손잡고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총 10곳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구매 가능 상품은 350여 개에 이른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 역시 새해부터 ‘요기요’를 통해 도시락과 주먹밥, 샌드위치 등 70종에 이르는 품목의 배달 서비스

에 나선다. 이 회사는 먼저 35개 직영점부터 시작해서 배달 대상 상품과 운영 방식 등 최적화 시스템을 갖춘 후 순차적으로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요기요’와 ‘바로고’ 등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사당역점 △봉천역점 △여의IFC점 △강남센터점 등 5개 직영점에서 배달 서비스 시범 테스트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배달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말 ‘요기요’를 통해 일부 점포에서 PB(자체상표) 피자인 ‘치즈앤도우’의 즉시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서울 서초점과 중계점, 금천점, 울산점 등 총 6곳이다.

홈플러스의 슈퍼체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장보기 즉시 배송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비스 운영 과정을 점차 개선해 운영 점포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마트도 지난해 10월부터 물류 스타트업 ‘나우픽’을 통해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강서 양천구를 대상으로 PB상품인 ‘피코크’를 배달하는 즉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치킨, 신선식품 등에만 한정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논의과정에서 품목이 확대됐다”며 “즉시 배달 서비스는 판로 확대를 위한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세대 교체’ 이랜드, 30대 상무 첫 탄생

이랜드그룹이 30대 상무 승진 등 파격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랜드그룹은 정기 임원 승진 안을 각 계열사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일 발표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젊은 우수 인재를 배치해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계열사 CEO로 선발한 30대 윤성대 대표와 김완식 대표를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그룹 최초 30대 임원의 등장은 향후 40년을 준비하는 세대교체의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룹의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이랜드파크 윤성대 대표는 올해 만 38세로 이랜드파크의 CFO로 근무하면서,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립하고 외식 부문 자금 유치 등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진에 합류했다.



윤성대

김완식

이랜드이츠의 김완식 대표는 올해 만 36세로 지난해 동종 외식업체가 큰 폭으로 역성장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 15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개선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등 외식 사업부문 체질개선을 이뤄낸 것을 인정받았다.

박미선 기자 only@



# 신년사로 본 증권업계 키워드는 ‘디지털·글로벌’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예상에 新성장 방식 필요” 강조  
 디지털 역량 부문별 업무 프로세스 적용 경쟁력 강화  
 ‘글로벌 IB’ 역량 키워 해외시장 개척 성장 기회 잡아야

새해를 맞은 각 증권사 수장들은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주문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쟁력과 효율성 높여야... ‘디지털’이 핵심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증권사 대표들은 신년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저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우려의 뜻을 보이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변화는 고객에 있다”며 “우리 역

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객들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이든 프리미엄 채널이든 서비스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상품과 솔루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정교해지고 스펙트럼은 좀 더 확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은 고객의 금융 니즈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경쟁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동안 축적해



정영채 사장 NH투자증권, 박정림 사장 KB증권, 정일문 사장 한국투자증권, 최현만 부회장 미래에셋대우, 김원규 대표 이베스트투자증권

온 디지털 역량을 부문별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디지털혁신본부와 M-able Land Tribe는 전략적 연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규 수익원 확보... ‘해외사업 확대’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향후 10년 우리의 미래는 △금융 수요증 변화에 대한 대응 △해외사업 확대 △신규 수익원 확보에 달려 있다”며 “빠른 고령화와 밀레니엄

세대의 금융 소비자 본격화에 대비해 리테일그룹, DT본부 및 IT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1~2%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글로벌 IB라는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선진 금융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

는 경쟁사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하이 퀄리티를 지향해야 한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우량자산에 투자할 기회와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고객을 대하는 임직원의 자세 역시 최고의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현만 부회장은 “우리의 글로벌화는 단순히 네트워크의 확장이 아닌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라며 회사는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경제와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1조 원’ 증소형사, 대체투자도 도약 다짐 =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는 “사업적으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대체자산의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은 쏟아지는 규제와 양극화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지만 미래 산업을 이끌 새로운 아이템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2020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일 열린 2020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호 코넥스협회 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회 회장, 정 이사장, 은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재승 코스닥협회 회장. 연합뉴스

## 美·中 펀드 수익률, 올해도 ‘高高’

무역협상 극적 합의에 증시 혼풍 연말 수익률 평균 30%대로 마감  
 “위안화 강세 예상에 상승 기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합의 하면서 양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고공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G2(미국·중국)’ 증시가 으뜸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펀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 775개 수익률은 25.70%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펀드 수익률 약진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182개 평균 수익률은 32.78%, 북미주식 펀드 41개 수익률은 31.39%로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러시아 펀드(38.51%)를 이어 각각 2·3위에 올랐다.

지난 연말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증시에도 혼풍이 분 겹과다. 미국 증시의 경우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연말 상승세가 이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SSEC)도 31일 3050.12에 장을 마감하며 연초 대비 23.77%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는

에 펀드. 중국 펀드 중에서는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 ETF가 연초 이후 80.3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익을 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ARIRANG 미국나스닥기술주’ ETF가 53.88%로 수익률 선두를 달렸다.

일반펀드 중에서는 ‘KB스타미국나스닥 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C-W(38.54%)’와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UH) S(61.58%)’가 각각 미국·중국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증시는 올해도 나란히 고공비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연초 위안화 강세가 예상되면서 중국 증시 으뜸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 달러화의 하향 안정과 글로벌 경기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흥국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예상한다”며 “특히 중국 주식시장의 아웃퍼폼을 예상하는데, 무역 갈등 당사자인 만큼 무역 합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주식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준 부양책과 경기 반등, 대선 모멘텀 등을 감안하면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1兆 이상 ‘IPO 대어급’ 줄줄이 출격 대기

SK바이오팜, 예비심사 승인  
 롯데그룹 지배구조 마지막 퍼즐  
 ‘호텔롯데’ 상반기 상장 가능성  
 태광실업·카뱅 등 시기 저울질

상장 공모 규모 및 기업 수 (단위: 원) \*기업인수목적회사(SMCK) 제외

	2017년	2018년	2019년
유기증권시장	4조4484억	9166억	1조4707억
코스닥시장	3조3704억	1조9032억	2조3402억
상장 기업 수	62개	79개	75개

※출처: 한국거래소

올해 국내 증시에는 공모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SK바이오팜을 비롯해 호텔롯데, 카카오펅크, 현대카드, CJ헬스케어 등이 IPO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장 빨리 속도를 내는 곳은 SK바이오팜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상장 신청일 현재 SK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예상 기업 가치만 약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은 신형·정신질환을 포함한 중추신경 관련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는 단연 호텔롯데이다. 2016년 IPO를 진행했다가 공모를 철회한 바 있는데 당시 기업 가치만 15조 원에 달해 올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시장을 출렁이게 할 폭풍으로 꼽힌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만큼 속도를 내 상반기 중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태광실업과 CJ헬스케어도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태광실업은 주권사와 법률자문사 선정에 마무리하고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CJ헬스케어도 지난달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 등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현대카드도 상장을 위해 대표주관사 선정에 대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의 상장은 2년 전 주주로 맞은 재무적투자자(FI)들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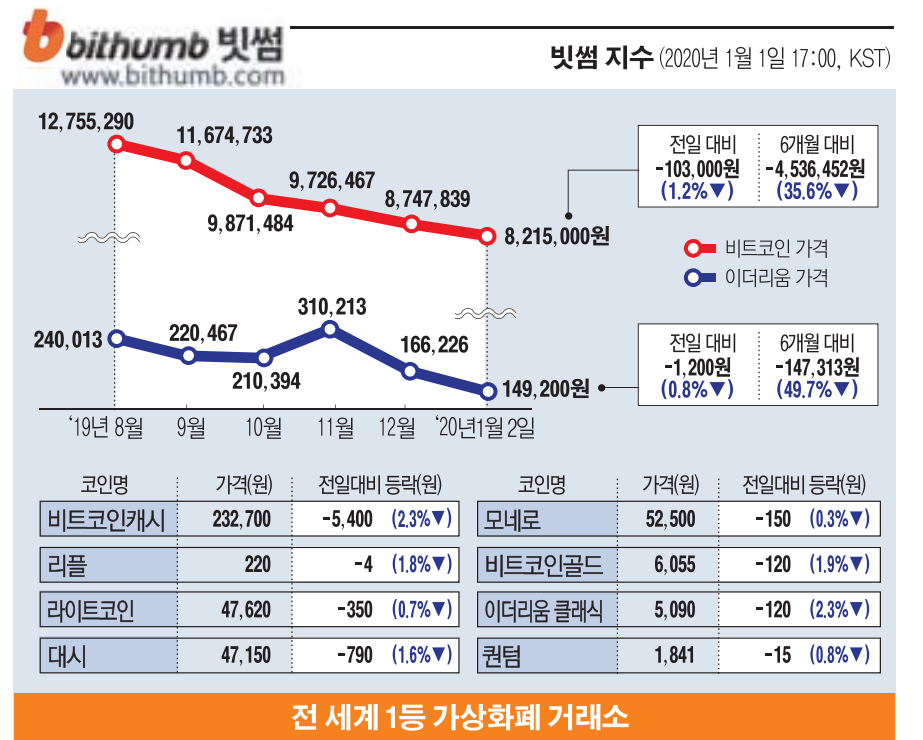
카카오뱅크는 아직 주관사 선정 작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장 시기

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 가치만 최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니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종합화학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IPO를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SK건설, 호반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도 가치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상장한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시장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리츠 시장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가 상장 성공하면서 우량 부동산을 보유한 유동회사나 금융사들이 리츠 상장 의사를 타진 중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상장에 실패한 홈플러스나 이지자산운용의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상장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IPO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작았음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면서 “올해는 조 단위 공모금액을 예상하는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IPO 기업 수익률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통과...목동 집값 '들썩'

## 작년 집값 상승 1위는 16% 뚝 대전 유성구

1~3단지 용적률 200%→250%  
6단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 3억 '경층'  
"집값 상승으로 오히려 발목" 우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경.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대어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재건축 청신호가 켜졌다. 숙원 과제였던 1~3단지 종상향 결정된 데 이어 6단지가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비늘구멍보다 더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별써 목동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검증 등 재건축 사업 시행까지 남아있는 변수가 다수인데다 정책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경우 정치적인 요인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이달 중순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작업에 들어간

다. 지난달 31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것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 작업을 위해서다.

6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앞서 1~3단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재건축 사업 급물살의 기대감을 키운다. 총 5000가구를 웃도는 목동 1~3단지는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으로 분류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3종으로 전환되면 용적률은 250%까지 높아지는 만큼 사업성 논란의 가장 큰 걸림돌

을 해결한 셈이다.

연이어 터진 호재에 목동 아파트값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65.34㎡는 지난달 29일 13억 원에 매매됐으며 2단지 전용 65.82㎡는 13억 원, 3단지 64.98㎡는 13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들 단지의 아파트들은 직전 거래까지만 해도 11억~12억 원대에서 거래됐다.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과 며칠 사이에 호가는 최고 3억 원 이상 올랐다. 양천구 목동 C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장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

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매물 관련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막상 재건축 시행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업 진행까지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만 하더라도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가 6단지처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가 최종 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전례가 있는 만큼 최종 통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호재로 목동 아파트값이 오를 경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제 막 안전진단을 받은 만큼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김동호 기자 sorahosi@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다섯 곳 중 세 곳이 대전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지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대전 유성구였다. 유성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3.3㎡ 기준으로 1월 1103만7000원에서 12월 1281만3000원으로 16.1% 상승했다. 대전 중구(15.6%)와 서구(14.1%)도 각각 아파트값 상승률 2위와 4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전 아파트 몸값이 급등한 것은 수급 불균형과 재건축 기대감 덕이다.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시였다. 과천시의 평균 전셋값은 3.3㎡ 당 1월 2471만3000원에서 2711만9000원으로 9.7% 올랐다. 박종화 기자 pbell@



# 수도권 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강화' 입법예고 "하루아침에 자격 박탈" 예비 청약자 '부글부글'

## 부영주택, 여수 마린파크 애시앙 6일부터 분양...2022년 4월 입주

### 국토부 "상황 예의주시"

주택 분양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은 2월 9일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

양 물량 중 우선 공급하는 대상의 지역 거주조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제4조 제5항, 제34조 제1항)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갈매지구)다. 최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면 과천시 거주민

30%, 경기도 거주민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로 배분한다. 기존에 과천시에서 1년간 살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을 지내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거주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40여 개나 달렸다. 댓글을 올린 J씨는 "기존 1순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해 버리는 것은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S씨도 "계획적으로 청약

에 임하려 했던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준다"며 "지방에 살다가 1년 기준을 채워 원하는 곳에 청약하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직장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경과하면 시행 공포된다. 입법예고 종료시점(2월 9일)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에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거주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지희 기자 jh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거사는 channel 5에 게재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조감도)'를 6일부터 분양한다. 부영주택은 이날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하고, 7일과 8일엔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단지는 14일, 2단지는 15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29~31일이다.

2022년 4월 입주 예정인 마린파크 애시앙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높이로 18개동이 들어선다. 입주 규모는 총 1054가구,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마린파크 애시앙의 견본주택은 여수시 학동에 문을 연다. 박종화 기자 pbell@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비야호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상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니다면, 실패들은 문뜩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싶은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애모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권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뿐,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00원 / 215,800원



# 檢 ‘패스트트랙’ 37명 무더기 기소

## 황교안·나경원·이종걸 포함... 여야 의원 18명 재판에 넘겨져

### 공무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 금고 이상 확정된 의원직 박탈 文 의장 추행·사보임 무혐의 처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회 의원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가운데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대표 61명 전부 일정 부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황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접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다수 현장에 가담해 직접적인 유행력 행사 정도가 중한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겼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

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18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생겼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의 결의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종용 기자 deep@



### 새해벽두 찾아온 불청객

단계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기상청은 이번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밑 한파가 물러나자 새해부터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영남 내륙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기상청은 이번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아파트 ‘계약변경’ 예상했다면 지정 동·호수 달라져도 파기 안돼”

### 대법 “이의 미제기 각서” 파기환송

계약내용 변경 가능성을 인지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하는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조합원 23명이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106동·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자 원하던 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조합 측은 사전에 “다른 동·호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

다”고 안내했으나 A 씨 등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계약은 지정 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등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이 명시된 각서를 제출한 만큼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초 공급받기로 한 지정 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서울시, 재난 사고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

###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미

공감

위로

# BRAVO My Life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겨울방학 '방콕' 대신 박물관 나들이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찾은 한 가족이 1층에 전시된 '로봇 태권브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 아이는 역사체험, 아빠는 추억소환

### 올댓립 전국 어린이박물관

최근 전국 각지에 어린이박물관이 앞다투어 문을 열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추위 걱정 없는 박물관에서 학습과 체험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떨까. 특히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박물관도 있어 안성맞춤이다.

#### 경기도 연천 전국선사박물관 동북편 최초 발견 '주먹도끼' 선사시대 얼굴 합성 체험 인기

◇우주선 타고 시간 여행= 전국선사박물관은 동북아시아 최초로 아슬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연천 전국리 유적(사적 268호)에 위치한다.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완공된 건물은 원시 생명체와 우주선을 결합한 모양새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고고학체험실(인터스코프), 3D영상실 등을 갖추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만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구석기나라 여관'을 이용해 본인의 얼굴과 선사시대 인류의 얼굴을 합성해보는 체험은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상설전시실에서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정교한 모형으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소개한다. 고고학체험실에서 고인류 VR, 냉동 미이라 '외씨' 체험도 즐겨보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관람료 무료.

선사시대 유적이 많은 한탄강과 임진강 물줄기 따라 여행을 이어가자. 한탄강 관광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꾸민 임진물새롬랜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을 보여주는 연천 당포성(사적 468호), 고려조 네 왕의 제사를 지내던 연천 송의전지(사적 223호)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어린이들의 보물섬,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 추운 겨울에 재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으로 떠나자. 상상력을 키우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다.

카메라 렌즈 속으로 들어가면서 박물관 여행을 시작한다. 초창기 애니메이션 작품

과 포스터, 촬영용 카메라와 영상기 등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를 관람하고,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사운드를 만들어보는 폴리 아티스트 체험, 애니메이션 기법을 몸으로 경험하는 핀 스크린 체험, 애니메이션에 내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 체험이 인기다.

옆에 있는 토이로봇관도 둘러보자. 다양한 로봇을 조작해볼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로봇의 매력이 빠진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회 공연하는 로봇 댄스도 놓치면 안 된다. 관람료는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 각 6000원, 통합권 1만 원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과 1월 1일에 휴관한다.

효자마을 낭만골목은 아기자기한 변화가 가득하다. 춘천낭만시장에서 시장표 주전부리를 맛보고, 곳곳에 있는 재미난 그림을 찾아보자. 고즈넉한 춘천의 멋을 느끼고 싶다면 이상원미술관을 추천한다.

#### 충북 음성 한독의약박물관 동·서양 의약 관련 유물 관람 소화제 만들어보며 지식 넓혀

◇관람은 기본, 체험 프로그램 풍성 = '우리 선조들은 소화기 안 될 때 어떻게 했을까? 서양에서는 사람에게 동물 피를 수혈한 때가 있었다는데 왜 그랬을까?' 한독의약박물관은 동서양 의약 관련 유물을 관람하고 소화제를 직접 만들어보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곳이다.

국내 최초 전문 박물관이자 기업 박물관으로 1964년 개관했다. 무료로 개방하고,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충실해 가족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19세기 독일 약국을



인류의 진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연천 전국선사박물관.



19세기 독일 약국을 재현한 음성 한독의약박물관.



일제강점기 시대 약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만나는 공간 국립김해박물관.

재현한 특별전시실과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플레밍 박사 연구실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독일 약국 안 약장과 약병은 모두 진품으로, 독일에서 가져온 것이다.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네이버에서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에 휴관한다(추가 휴관일 홈페이지 공지).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코리아크레프트브유어리는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에 시음을 포함한 투어를 진행한다. 탬플에서 갓 만든 생맥주를 화덕 피자, 소시지와 함께 즐길 수도 있다. 역사가 100년이 넘은 감곡매곡교성모순례지성당은 멋스러운 건물과 고즈넉한 풍경이 일품이다.

#### 전북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 일제 '수탈·탄압' 고통의 현장 빈민 거주하던 '토막집' 재현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 일제강점기 참혹한 수탈이 활취고 간 군산은 상처투성이다. 무수한 약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거리는 생생한 고통의 기록이자,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됐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 수탈의 근거지로 왜곡된 성장을 겪은 도시의 상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3층 근대생활관에는 일제의 수탈과 탄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다양한 풍경도 재현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군산 최고 변화가 었다는 영동상가 맞은편에는 산비탈로 쫓겨난 도시 빈민이 거주하던 토막집이 있어 대비된다. 채만식이 장편소설 '탁류'에서 '미두장'으로 표현한 군산미곡취인소도 눈에 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9시, 첫째·셋째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이다.

◇비취색 고운 고려청자의 고향,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 고려청자박물관은 세계에서 청자를 가장 먼저 만든 중국인마져 천하제일이라 칭송한 고려청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다.

2층 상설전시실에는 9세기 청자완, 12세기 청자상감여지문대접, 13세기 청자되화연국문과형주자, 상감청자가 쇠퇴해 분청사기로 변모해가는 14세기 청자상감용문매병 등이 시대별로 전시된다. 참외 모양 청자되화연국문과형주자는 황토와 백

토를 붓에 묻혀 문양을 넣은 흔치 않은 작품이다.

청자범종과 청자인장 등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 800여 점을 전시한 공간도 있다. 연꽃, 국화, 모란 등 청자가 품은 아름다운 꽃문양과 명문(銘文)이라 부르는 표식 등을 소개한 1층 특별전시실과 기획전시실도 흥미롭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자 체험은 나만의 고려청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에 휴관한다.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무료).

조선 민화 200여 점을 전시한 한국민화뮤지엄과 다산 정약용의 흔적이 있는 강진 정약용 유적(사적 107호)도 놓칠 수 없다. 정약용 유적에서 2km 남짓 떨어진 다산박물관은 201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념 인물로 꼽은 다산 정약용의 강진 유배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 국립김해박물관

#### 가야 왕국 '건국·소멸' 변천사 신석기시대 유적 유물도 전시

◇잃어버린 왕국 '가야'로 통하는 시간의 문 = 국립김해박물관은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만나는 공간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찬란하게 빛난 가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의 선사시대, 변한의 문화와 유물까지 아우른다.

창원 다호리에서 발굴된 통나무관, 국내 최대 신석기시대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부산 가덕도 유적의 유물도 전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야 왕국의 건국부터 소멸에 이르는 변천사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본관과 이웃한 어린이박물관 '가야누리'는 놀이와 배움을 결합한 공간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 코너가 많아 가족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국립김해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주말·공휴일 오후 7시), 휴관일은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김소희 기자 ksh@



# “재밋게 살다가라 아버지 유훈에 연기도 운동도 하고싶은 대로...”

다이빙이자, 골퍼이자, 승마 코치인 배우 홍요섭

그 누구보다 신사다운 이미지의 배우. 어느 장면에 나와도 화면 안에 그만의 안정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배우라고 하면 홍요섭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경자년(庚子年)인 올해 예순다섯 살, 서글서글한 눈매와 주름이 더 매력적인 남자. 참 목직한 홍요섭을 만났다.



강골과 기백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만큼, 홍요섭은 신사적인 이미지와 반대로 단련된 사람이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은 가치관과 정력한 생활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배우로서의 삶도 어언 4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다져진 배우로서의 캐릭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홍요섭은 브라운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배우다. 다작을 하지 않고 겹치기 출연도 사양하며 철저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살기 때문이다.

“제대 후 스물여섯쯤 됐을 때였죠. 소위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였는데 소극장 공연에서 그 ‘잡혀갈 소리’들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신문방송학과였는데, 그걸 본 이후 연극영화과로 전과하게 됐죠.”

‘생각도 못한 일’ 홍요섭은 자신이 배우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길을 선택한 자신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평생 지침이 되었다. “너하고 싶은 거 해라. 다만 네 아내나 친구들 창피하지 않게 해라.”

## 소극장 공연에 반해 신방과서 연영과로 무릎 부상에 골퍼인생 접고 ‘승마’ 전향 교육·목회 몸 바친 아버지 늘 자식 응원

삶의 철학을 만들어준 아버지 홍요섭을 말하려면 그의 아버지인 홍영의 목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그의 삶 전반을 지배했던 것은 아버지의 존재와 삶의 태도, 남겨진 말들이다.

“아버지가 독특한 분이셨어요. 교육자이자 목사님이자, 김일성과 동감하셨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죠.”

고(故) 홍영의 목사는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서자 토지 개혁이 시행되기 전에 일가친척을 다 데리고 나와 해주를 거쳐 인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교육사업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평생 동안 나눔에 힘썼다.

“처음엔 참 답답했죠. 우리나라 좀 주지.(웃음) 결혼하면서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가진 게 없었으니. 마침 아내의 친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였어요. 결혼하기 전 그분이 ‘홍 목사 자식이면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장인도 저희 결혼을 쉽게 결정하시게 됐어요.”

그가 지금 전무이사로서 있는 브리지스톤골프 또한 그의 아버지의 신념과 일치하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소위 팔리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 아이들 등 보다 다양한 사람을 위해 제품을 만들고 사회공헌 철학이 투철한, 나누는 회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 뭐 있나?”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그와 그의 아버지의 기질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82세 때 떠났어요. ‘나 갈 때 됐다’ 하며 ‘화장해서 버려라. 뼈다귀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살아 있을 때 잘해라. 장인·장모님 자주 찾아뵙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를 받은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유쾌하게 치러졌다. 문상객들이 ‘이게 장례식이야?’ 하며 놀랄 정도였다. 아버지 홍 목사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 도전정신으로 스쿠버에 더 열중

“알아서 해라. 단, 재밋게 살다가라” 말하는 강골과 기백이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만큼, 홍요섭은 외면의 신사적인 이미지와 내성적인 인상과는 정반대로 단련된 사람이었다. 그가 방송계와 친해질 수 없는 것 또한 자신의 기준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에는 나갔지만 겹치기 출연은 거절했다. 대신 오지 여행을 다니며 다이빙이 됐다.

“아버지 말씀을 생각해보니 간혀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200년 살면 모를까. 팔라수에 조그만 집을 갖고 있었어요. 드라마 제의가 들어와도 다이빙 약속이 있다고 거절할 정도였죠.”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시작했던 그의 다이빙 생활은 45세까지 20년가량 이어졌다.

### 골퍼의 삶에 찾아온 좌절

나이 들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퍼를 배우기 시작했다.

“제대로 커리큘럼을 배우보자 하고 미국으로 가서 고덕호 프로와 함께 생활했죠. 시니어 프로 골퍼 자격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릎에 문제가 생겼죠.”

프로 자격까지 획득해 골퍼 선수로서의 미래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 드라마 촬영을 하던 중 무릎이 시큰시큰 하더니 확 주저앉는 일이 벌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릎이 상했기 때문이다. 큰 수술을 한 뒤

재활했지만 선수로서의 미래는 어렵게 되었다.

“회사로부터 2년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2년 차에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많이 좌절했어요. 화가 나서 골프대를 쳐다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십자 인대 말썽으로 좌절해 있던 그에게 재활치료 차원에서 의사가 승마를 권했다. 2007년의 일이었다.

“승마는 허리 아프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한테 권합니다. 승마를 하니 장이 좋아지고 살이 조금씩 빠지니까 ‘괜찮네,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었죠.”

그로부터 14년여가 지났다. 그는 여전히 승마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승마 코치이자 마사회 홍보위원으로도 활동한다.

“말은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이 나를 태워주거든요. 말의 컨디션을 살피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말과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우고 나니 사람과의 관계, 삶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깨닫게 되더군요. 승마는 제 인생의 마지막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욕심을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가 인상적으로 보는 현상은 젊은 부부들이 승마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돈은 꽤 들어도 주말이 될 동안 승마로 운동을 하면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엔 아예 마주가 되려고 말 가격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 도중 자신의 말을 핸드폰으로 보여줬다. 다른 말들과는 구별되는 비범함과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가 말에 빠져든 이유가 단숨에 체감됐다.

### 정치 입문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무릎을 다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돼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죠. 그때 방송 유세에서 마지막 지지 연사가 저였어요. ‘나는 정당인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연설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죠. 그리고 그걸로 녹화를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방송국에 도착하니 문제가 생겼다. 눈조가 바뀐 원고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완전히 정치인들이 나 하는 말들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BBK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상대를 물어뜯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장 정치인이 될 판이었어요. 함께 온 와이프와 친구에게 보여주니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다.

“정치를 할 거면 벌써 했지.(웃음) ‘못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보니 4~5년 속 썩을 뻔했죠. 그래도 BBK사건 전의 원고는 눈조가 참 좋았는데, 아쉬워요.”

## 세계를 여행하며 죽을 고비 여러번 잘 털어버리고 담아두지 않는 성격 섬마을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라

### 채운 것들 털어내며 달관에 이른다

홍요섭에게는 달관한 사람의 넉넉함이 있다. 세계 곳곳의 오지를 여행하고 바다를 사랑한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얻게 된 태도다.

“어지간한 건 탁탁 털어버립니다. 당하기도 많이 당했어요. 변호사 친구들이 난리쳤지만 고백하기 싫어서 넘어간 일도 있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죠.”

그 역시 요즘 나이 들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석모도다.

“인천 석모도에는 강도 있고 낚시도 잘되고 물 좋은 온천 단지도 있어요. 거기에 조그맣게 집 짓고 사는 것도 좋죠. 장어를 키워보고도 싶어요. 난 물을 좋아하니까. 장어를 키우는 게 손이 많이 간답니다. 그럼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재밋잖아요? 흠 묻히고 사는 일.”

그는 자신을 아무도 기억 못하면 좋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자신이 작정한다고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사랑하는 물과 바람처럼, 삶을 사랑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버지처럼 그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 그의 시원시원한 대답에는 미련이 없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은 길만을 걸었기에 잘못되지 않았고, 돈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그 진정한 자유를 즐기는 그가 다시 한번 부러웠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리브모바일! 통신생활을 쉽게 바꾸다



새로운 모바일의 시작



### 통신사, 리브모바일로 바꾸고 놀라운 통신생활 누리세요



**세상 놀라운 요금제**  
LTE 및 5G 파격적 요금 할인



**세상 간단한 가입절차**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유심만 꽂으면 가입 끝



**세상 쉬운 금융인증**  
모바일 인증서가 유심안으로! 갱신없이 인증

**LTE 무제한 요금제  
반값 할인 이벤트**

- 행사기간 : 2019.12.16(월)~2020.2.29(토)
- 대상 : Liiv M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고객
- 방법 : 행사기간 중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 시 자동 적용
- 혜택 : 무제한(11GB+) 요금제 개통월 포함 12개월 반값 할인 (월 44,000원 → 월 22,000원)

\*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Liiv M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직원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2061-2호(2019.12.23), 광고물 유효기한 2020.02.29까지



# 무영탑 설화 재해석한 아르헨 미술가

〈無影塔·석기탑〉

에를리치 '그림자를 드리우고'展

“사물의 반영, 곧 사라지는 그림자 오히려 그 실재를 온전히 드러내 주체·객체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 내 위치 따라 타자의 본성 달라져”



아르헨티나 설치미술가 레안드로 에를리치가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레안드로 에를리치: 그림자를 드리우고' 전시회에서 작품명 '구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을 이룬다. 어느 쪽에서 바라본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에를리치는 “그림자는 어떤 사물의 물질적 존재를 반영한다”며 “사물이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면 오히려 하거나 실수하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에를리치는 반영 이미지를 실제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어 내 이러한 불안정한 인식의 투영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관람객은 직접 작품 안에서 사건의 교차점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익숙한 공간에서 묘한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에를리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4개를 붙여서 만든 설치 작품 '엘리베이터 미로'는 관람객에게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거울일 것이라 생각한 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다. '더 뷰'는

설치된 블라인드의 틈을 통해 마치 자신의 집에서 다른 집들을 훑어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 에를리치는 “작품을 통해 인식하는 주체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타자의 본성 역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면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두 개의 대상을 구분 짓는 경계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마지막 공간인 프로젝트 갤러리2에 있는 '구름(남한, 북한)'은 실제의 '경계 없음' 혹은 '무상함'을 보여준다. 각각 11개의 프린트 된 유리판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갈라진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에를리치는 “구름은 바람 따라 흩어졌다 모이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서 “남한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영향받고 국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역학 관계가 변하는 남북한의 모습은 흥미로운 소재였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



## 인사

- ◆국회사무처 <이사관 △법제실장 고상근 △의사국장 박대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오정규
-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보 △윤리경영실장 김정필 △기획조정실장 현정석 △경영지원실장 백승한 △광해기획실장 임영철 △지역진흥실장 고도인 △기업지원실장 강희종 △자격을정실장 이나은 △연탄지원실장 고성직 △충청지사장 권창호 △충남지사장 오세강>
- ◆도로교통공단 <본부 전보 △혁신조정실장 신승철 △경영지원처장 송준규 △ICT센터장 이재훈 △ICT전략처장 현병주 △ICT융합처장 기용길 >인사 교육처장 우덕근 △공인검사처장 이호연 △사고분석 개선처장 나재필 △교육관리처장 김승옥 △미래교육 처장 김성욱 △방송관리처장 김영주 △편의관리처장 유충섭 △편의지원처장 전용환 △교통공학연구처장 명모희 △차량주행연구센터장 김용석 △인프라연구 처장 윤진수 △융합기술연구처장 곽광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소상공인본부장 김수업 △시장성권본부장 전우소 △금융사업본부장 김성근 △혁신성장본부장 김우오 △지역본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봉재 △실장 △사회적가치 실현실장 이봉희 △정보화전략실장 전대성 △비상안전실장 강규태 △재기지원실장 강계주 △유통지원실장 이정욱 △관광육성실장 양승경 △특성화지원실장 박진희 △마케팅지원실장 박상규 △상품권사업실장 정원기 △채권관리실장 강성한 △소상공인혁신실장 박경모 △소상공인지원실장 오윤배 △협업지원실장 서근하 △조사분석실장 김관호
- ◆산업연구원 <보직 임명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계한 △산업정책연구본부장 혁신성장정책실장 조재한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산업고용정책실장 김주영 △산업통상연구본부장 통상정책실장 김수동 △산업통상 연구본부장 동북아산업실장 김동수 △서비스산업연구 본부 서비스R&D정책실장 이동희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이도희 △부원장실 대외협력 실장 송우경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상규 △산업표준본부장 유숙철 △우주부품시험센터장 김경희 △비대데이터응용센터장 이용운 △북핵형상표준 센터장 황영수 △환경평가센터 통합환경관리팀장 차재두 △안전보안실 사이버보안팀장 윤형득
- ◆국립산림과학원 <과장급 전보 △연구기획과장

- 신규선임) <부서장 △경영기획본부 신재현 △나인원한남관리부 손승희>
- ◆신한금융투자 (임원 선임) <부서장 △홈세일그룹 김중욱 △전략기획그룹 이선훈 △상부 △리스크관리부 김병국 △정보보호본부 정병기 △본부장 △GIS본부 안석철 △영남영업본부 최태순 △글로벌사업본부 홍용선 △FICC운용본부 김성원 △디지털사업본부 옥형석 △키버리지본부 김준태 △FICC영업본부 김기동 △리서치센터 윤창용 (임원 전보) <전무대우 △PBS사업본부 김홍기 △상부 △금융소비자 보호본부 현주미 △해피펀드운용본부 정무연 △본부장 △고객자산운용본부 최원명 (퇴직연금사업본부 겸직) △PS본부 오해영 △ICT본부 광병주 △강남영업본부 윤인철 △호남충청영업본부 서태영 △WM추진본부 이영논>
- ◆대신금융투자 <부서장 선임 △실물투자금융1실 김도일>
- ◆DB금융투자 <승진) △상부 △Wholesale사업 부장 강성욱 △전략기획담당 최준현 (보임) △지역본부장 김태수 △FICC영업본부장 김영창 △FICC영업1팀장 이도현 △해외영업파트장 류지현 (전보) △디지털영업팀장 김우상 △2지역본부장 이병진 △영업부장 윤주섭 △출자자금운용실장 최성호 △청담금융센터장 박호석 △원주지점장 정명구 △디지털컨설팅파트장 양종문
- ◆에베스트투자증권 (신규 선임) <팀장 △종합금융3팀 임영준 △IB금융2팀 김동수 △법인영업팀 문영복 △해외주식법인영업팀 김정욱 △주식운용2팀 백선우 △파생상품2팀 이재일 △인프라운영팀 민병광 △해외파생영업팀 이현민 △구조화금융2팀 김용연>
- ◆한양증권 (승진) <상무대우 △기업금융1부 안병중 △채권금융부 한경호 △채권부 한재홍 △채권운용부 김현중 >이사대우 △프로젝트금융실 신준화 △투자금융실 민은기 <부장 △프로젝트금융부 나성호 >차장 △투자금융부 김배섭 △투자금융부 윤석채 △프로젝트금융부 강준민 △특수금융부 임나원
- ◆흥국증권 <본부장 △법인영업본부장 정영재 △채권금융본부장 홍석균 △부동산투자금융본부장 엄기수 >팀장 △채권금융1팀장 김규남 △종합금융팀장 이상민 △전략금융팀장 남다혜
- ◆케이프투자증권 (신규선임) △프로젝트금융부 문장 윤병희 상부 △PF사업본부장 정재욱 상무부 △투자금융본부장 김용섭 상무부 (상무부 승진) △리스크관리본부장 김봉환
- ◆산은캐피탈 <신규 선임 △대표이사 사장 전영삼

# 봉사로 헌혈로... 의미있는 새해 시무식

현대백화점, 10번째 연탄나눔

농협 직원들 자발적 헌혈 참여



현대백화점그룹이 올해로 10번째 '연탄나눔 봉사'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시무식을 마친 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연탄나눔 봉사는 정기선(사진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사마을 내 30가구에 연탄 3750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직접 배달한 연탄 3750장을 포함해 총 25만 장(2억 원 상당)의 연탄을 '발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박민서 기자 only@



농협은 새해를 맞이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직원 대상 헌혈 시무식을 했다. 지난해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열린 시무식'에 이어 올해는 본사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헌혈행사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시무식 종료 후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2대에서 실시됐다. 직원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한 허식(사진 누워있는 이) 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직원들이 헌혈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줘서 고맙고, 직원들의 소중한 정성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퀄컴 과징금 승소 3인 '올해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왼쪽 사진부터) 기업거대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 퀄컴



이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부음

- ◆홍천성 (KAIST 명예교수·전 KAIST 총장·전 국회 의원) 씨 별세, 이순희 씨 남편상, 홍승은·승효·승혁 (GE 미국본사연구소 리더 엔지니어) 씨 부친상, 이계무 (미드웨이 인터내셔널 이사)·원정호 (우리 PE 자산운용 본부장) 씨 장인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63
- ◆박길자 씨 별세, 김창현 (전 인사공사 감사) 씨 부인상, 김지현·지수·희수·상일 (필드코리아 상무) 씨 모친상, 장정현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박준용 (성원에프씨 대표)·김대진 (CJ제일제당 부장) 씨 장모상 = 2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2227-7500
- ◆김진문 씨 별세, 김현호 (원모터스코리아 대표)·정윤·수정 (중앙일보 콘텐츠제작에디터 겸 논설위원) 씨 부친상, 김태환 (자영업)·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인상, 김지은 씨 시부상 = 2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4일 오전 9시, 053-620-4241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20년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파업일수를 기록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스웨덴의 노사관계가 1938년 샬트세바덴 협약을 통해 상생의 관계로 거듭나며 노동쟁의 건수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산업 평화를 얻기까지,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균형감 속에 끈질기게 이어간 5년간의 수많은 토론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상 변화에 발맞춰 산업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했던 경우는 결코 적지 않았다.

첨단기술의 상징적 키워드로 자리 잡은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눈앞의 미래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과 7년 남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용 보험과 법령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춘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되어, 산업 혁신을 저해해온 규제 등 고질적인 걸림돌이 이번엔 잘 해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갖게 된다.

자율주행차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 복지국가의 역할과 여지에 대해 짚어 봐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교통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일상 생활의 편의와 효율에 혁신을 가져와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차량 소유와 보험시장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택시, 화물차, 택배, 버스와 대리운전 등 운수업 일자리가 대량으로 감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근원적인 파장이 예

상된다.

이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 동시에 심각한 이해 갈등이 불거져 혁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정해내는 일이다. 칼 폴라니는 자신의 저서 '거대한 전환'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힘'을 통해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여지가 존재해 왔다고.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이해 갈등과 조정 과정을 보며 우리 사회의 이해 갈등이 지나치게 심각하고 갈등해결 능력은 형편없음에 실망한 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말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벼랑 끝에서 더 강경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때는 필연적으로 한쪽이 패배하는 생존을 건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되고 만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정해졌다면, 복지국가의 조정 능력은 변화에 대

비하고 조정할 시간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리게 된다.

1920년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파업일수를 기록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스웨덴의 노사관계가 1938년 샬트세바덴 협약을 통해 상생의 관계로 거듭나며 노동쟁의 건수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산업 평화를 얻기까지,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균형감 속에 끈질기게 이어간 5년간의 수많은 토론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상 변화에 발맞춰 산업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했던 경우는 결코 적지 않았다.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복지국가 전략을 응용하면,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되 일정 기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기존 산업이 약간의 가격경쟁력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는 동시에, 그 재원을 통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 꼭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이슈가 더 있다. 자율주행차가 인지, 판단, 제어하게 하는 알

고리즘 설계 시 부여해야 할 합리적인 윤리적 기준이 그것이다. 사고를 피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한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살리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고 정의로운가? 이 까다롭고 난처한 질문에 대해 2017년 독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발표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좋은 참고가 된다. 독일은 인간의 생명 중에 선택해야 하는 진정한 딜레마 결정에 대해서는, 기술시스템이 대신 평가를 내려 인간 운전자의 책임 있는 도덕적 판단을 대체하면 안 된다고 선언한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나이, 성별, 물리적·정신적 차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어떠한 차별적 판단이나 타인의 희생이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도 제시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거대한 전환'이 예고되고 우리에게 변화의 충격에 대비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엄청난 속도감으로 달려가는 변화 속에서도, 정치와 종교 등 모든 부문이 상호 작용해 인간이 주역이 되는 '사회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경제학 박사·전 통계개발원장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시장경제와 독과점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스스로의 이익을 쫓는 과정, 이것을 다른 말로 경쟁(competition)이라 표현할 수 있다. 경쟁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질서로,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퍼츠크는 1973년 미국 상원 반트러스트 및 독점 소위원회에서 "독점화된 경제는 사회주의보다 더 나쁘다. 국가는 최소한 윤리의식이라도 갖고 있지만, 독점화된 기업은 그것마저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 반면 독과점적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 간 경쟁이 약하고, 그로 인해 높은 가격, 낮은 품질의 상

품이 공급되기 쉽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도를 높여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경쟁정책'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공정거래정책'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반트러스트 정책', 일본에서는 '독점금지정책', 중국에서는 '반농단정책(=반독점정책)'이라 하는데,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유사하다.

공정거래정책이 수행하는 기능은 첫째, 시장이 가능한 한 경쟁적 구조로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결합이나 담합 등을 통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독과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둘째, 이미 독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500개 정도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업종에서 상위 3사의 출하액 집중률(CR3)은 2017년 기준 평균 44.1% 정도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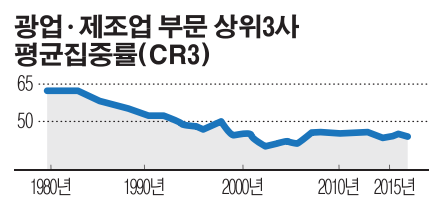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Market Structure, Number of Firms, Output Share. Rows include CR1, CR3, and Total.

\* 출처: 이재형 외 '시장구조분석'(KDI)

났다. 1980년에는 상위 3사 평균 집중률이 62.4%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발전 따라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장구조도 점차 경쟁화되어왔다(그래프 참조).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2200개 정도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 기준 이들을 시장구조 유형별로 보면 독점형 시장 및 고위과점형 시장이 각각 32.0%와 13.3%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규모의 경제, 새로운 기업의 진입 어려움 등으로 시장구조가 어느 정도 독과점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에서는 기업의 반경쟁적 시장행동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최근 배달업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세간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고위 과점적 배달업 시장에서 이들 기업 간 결합은 사실상 시장의 독점화를 의미한다. 벌써 독점기업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점적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유로는 ①(국민경제적)효율성 향상 효과 ②도산의 회피 두 가지뿐이다. 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퇴계(退溪) 이황(李滉) 명언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와 같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평생 학문 연구에 힘써 성리학(주자학)을 체계화했다. 율곡(栗谷) 이이(李珣)와 함께 조선의 대학자로서 쌍벽을 이루었으며, 봉당 가운데 동인이 그를 시조로 떠받들었다. 그는 1502년 오늘 태어나 1571년 오늘 세상을 떠났다.

☆ 고사성어 / 토고납신(吐故納新)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기공(氣功)요법의 하나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선술(仙術)의 구체적 방법인 심호흡법을 말한다. 진정한 호흡 수련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체내에서 생긴 독소 물질에 오염된 독기를 밖으로 완전히 배출한 다음 신선한 기(氣)를 보충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출전 장자(莊子) 각의편(刻意篇).

☆ 시사상식 / 뉴리치 현상 서민층에 퍼지는 종류식 확산 현상으로 중·하류의 수입에도 빈곤을 느끼지 않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현상. 이 현상은 종류 개념과 개인의 생활수준 인식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 신조어 /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다'를 줄여 이르는 말.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노래방 기계가 있는 작은 동전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뜻한다.

☆ 유머 / 경찰의 이중플레이 7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가 치과 치료를 받고 나오자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고 있었다. 생일날이라고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딱지를 떼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든 할아버지가 야속한 표정으로 운전하고 가려다 벌금 액수를 확인하려 고지서를 펼쳤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장교 끝에 발표한 임원 인사에는 그룹의 위기의식과 방향성이 담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 회장은 측근으로 알려졌던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를 교체했다. 신대표는 미국 쉬완스 인수 등 굵직한 사업을 이끌며 그룹의 차기 리더로 평가됐다. 신대표의 퇴진은 조직에 '과거의 성과가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반면 성과는 확실히 보상했다. '비비고'의 성장을 이끈 강신호 총괄부사장은 CJ제일제당 대표로 임명됐다. 외국계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사업을 키운 구창근 CJ올리브영 대표와 '호텔텔루나' '아스달연대기' 등으로 K드라마 확산을 이끈 최진희

스튜디오드래곤 대표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며 비상 경영으로 혼란한 조직을 추슬렀다는 평가다. 언뜻 바서는 신 대표의 교체는 글로벌 대형 M&A가 부채 증가와 실적 악화를 가져오면서 공격 경영에 발목을 잡힌 것이

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선임은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한 성과를 인정한 것인 만큼 일시적 흔들림은 있어도 글로벌 사업이라는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으로서 비상

기자수첩

안경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CJ의 비상경영과 지향점

사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합리적 해결의 첫걸음이다. 그 첫 단추가 임원 인사인 셈이다. 하지만 대표 교체를 포함한 임원 인사 카드만으로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키는 어렵다. 다만 비상경영 속에서 '차세대 리더'로 점찍은 신입 임원(19명)의 활약을 지켜볼 차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지적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의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보통 인간이며 불충하다면 군주는 낮게 평가될 것이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가 그들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페이스'들의 성과가 훗날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냉엄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슈&인물

새해 노동 이슈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주52시간, 조직문화 맞는 해법 찾아야”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초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주목할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변호사와 노동팀 전문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하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필두로 박재우·최진수·김완수·정대원·조규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이수정 미국 변호사, 크리스토퍼 만델 미국 변호사 등 외국계 회사를 위한 인력도 갖췄다.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정지원 고문이 힘을 보탠다.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방식 찾아야 = 조 변호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졌다”며 “조직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 및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창의력을 중시하는 정보기술(IT) 업계의 근무환경은 전통 제조업 등과 차이가 있다. 박재우 변호사는 “기업의 고문화를 지키고 자율성을 살리려면 근로시간을 타이틀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주 52시간을 준수하려다 보니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도 근무 형태가 달라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 회사 내에서도 나뉜다”며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상당한 법률적 검토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기간 동안 근로 감독을 통한 제재는 없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진정하는 경우 시정이 요구될 수 있고 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시간 효율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장근로시간 관리제도,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부각 = 조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봄을 이룬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배달 기사들은 배달 업체에 직접 고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연결되는 만큼 전통



율촌 노동팀장인 조상욱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주 52시간,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주요 노동 현안”이라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노동부도 형사처벌 관련 문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IT·전통 제조업 다른 환경

한 회사서도 다른 근무형태 연장·유연근로 등 보완해야

플랫폼 서비스, 시급제 운영

사실상 사업자가 지휘·감독

‘근로자성’ 인정 쟁점 될 것

‘괴롭힘 금지’ 사내 갈등요인

‘노동의 형사화’ 날로 심해져

노동법 관점 우선이 바람직

적인 사용·지휘 관계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계약 관계지만,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배달 업체 측에서 서비스 수행 방식 등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전통적 근로 감독에서의 지휘 관계와 같다고 하면 노조 결성, 퇴직금, 해고무효 주장 등에 대한 부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대원 변호사는 “요기요 같은 경우 플랫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수당을 시간급으로 주니까 노동청에서 ‘요기요’라는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씩 제기된 만큼 올해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본다”며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역할한 가해자’ 방지 논의 필요 = 조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절차적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문에서 기업

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역할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도입 목적상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는데 가해자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역올한 가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확보를 중요하게 꼽았다. 그는 “회사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 능력이나 경험이 없어 내부적인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도입 초기에 잘하고 있는 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 형사처벌 증가… “기업들,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 조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중대한 판결도 많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형사 책임도 많이 강화됐다”며 “이러한 노동의 형사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최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경향에 비춰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상당히 엄중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가급적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원정의 책임 범위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으로 올해는 산업안전 관련 사건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라며 “산안법 관련 제도와 운영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조 변호사는 노동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회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는지 등 반성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설

재계 ‘미래성장’ 화두, 획기적 규제혁파 뒷받침

올해 재계는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영환경의 극복과 미래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를 맞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내놓은 화두(話頭)이다. 위기의식을 표출하면서 자기혁신을 통한 생존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 것과 고객 중심을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었지만,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100년 기업 실현’을 내세웠다. 올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투자·수출·소비 침체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이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전동화·자율주행·모빌리티서비스 등 핵심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행복’을 동력으로 한 ‘딥체인지’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하자”는 경영이념을 거듭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예측 불허의 시대에 끊임없는 변화로 공감과 공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들 대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한 위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내외 환경의 엄중함에 대한 절박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깔려 있고, 선제적으로 이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전환기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변화에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의 극복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당장 생존의 기로에 처한 실정에서 스스로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문제는 그 혁신과 미래 개척의 발목을 잡는 우리 기업환경이다. 그물망 규제, 후진적 노동시장, 반(反)기업적 제도 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기업가정신은 쇠락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길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경제단체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강조한 얘기들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낡은 법과 제도 등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고,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우선 과제이고,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올해 반드시 눈에 띄는 개혁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세종과 장영실의 브로맨스 ‘천문’

영화 ‘천문: 하늘에 묻다’는 한마디로 세종과 장영실의 브로맨스 영화이다. 조선만의 시간과 하늘을 갖고자 했던 두 천재가 만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국왕이 노비를 불러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능력우선주의로 원나라 기술자를 아비로 둔 관료 장영실을 편천하고 국익에 유익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세종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조선을 발전시킬 수단이라면 어떤 출신이라도 인재를 불러들여 쓰임을 다하게 만드는 실질 숭상의 군주였다. 이는 백성을 공활히 여겨 훈민정음 창제로까지 이어졌다.

해시계(양부일구)의 약점을 극복한 장영실의 자격루는 15세기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이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또한 측우기는 이탈리아 가스텔리보다 200년 앞선 기술이었으며, 혼천의 등 과학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하늘을 관측한 경우는 아랍과 중국뿐이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세종과 장영실의 특

별한 우정은 세종 24년에 일어난 ‘안여사건(임금이 타는 가마 안여(安輿)가 부서지는 사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최고의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 내던 장영실이 가마 하나를 온전히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영화 기획은 시작된다. 이후 장영실은 문책을 받아 장 80대

를 맞고 역사적 기록에서 사라지며 행방이 묘연해진다. 영화는 사료를 토대로 장영실이 의문만 남긴 채 사라진 이유에 대해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완성된 작품이다. 사대주의에 물든 사대부의 음모와 세종의 정치적 부담이 엮이면서 이야기는 가파르게 진행되는 데, 이 부분을 얼마나 관객이 설득력 있게 받아줄지가 흥행의 관건이 될 듯하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장영실의 행방 이후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았던 조선은 급격하게 문약의 나라가 되고 만다. 세종대 이후 자연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전은 두드러지게 더뎠고 사농공상의 사회체계가 공고화된다. 만약 제2, 제3의 장영실이 계속 나왔다면 아마도 조선의 운명은 상당히 바뀌지 않았을까?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 Play Interactive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 K5



| Interactive Technology |

음성인식 제어 • 테마형 클러스터 • 공기청정 시스템 • 하차 후 최종 목적지 안내 • 카투홀

The Power to Surprise

www.kia.com  
귀일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5 1.6 T-GDI 17인치 자동8단 복합 13.8km/l (도시 · 12.3km/l, 고속도로 · 16.2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2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1g/km - 2등급 • K5 1.6 T-GDI 17인치(일렉트릭인입 보조배터리 장착) 자동8단 복합 13.6km/l (도시 · 12.0km/l, 고속도로 · 16.1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2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3g/km - 3등급 • K5 1.6 T-GDI 18인치 자동8단 복합 13.2km/l (도시 · 11.8km/l, 고속도로 · 15.4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5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7g/km - 3등급 • K5 1.6 T-GDI 19인치 자동8단 복합 12.9km/l (도시 · 11.4km/l, 고속도로 · 15.1km/l)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48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30g/km - 3등급 • K5 2.0 가솔린 17인치 자동8단 복합 13.0km/l (도시 · 11.5km/l, 고속도로 · 15.2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1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9g/km - 3등급 • K5 2.0 가솔린 18인치 자동6단 복합 12.7km/l (도시 · 11.3km/l, 고속도로 · 14.8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3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32g/km - 3등급 • K5 2.0 LPI 16인치 자동8단 복합 10.2km/l (도시 · 9.0km/l, 고속도로 · 12.0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6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3g/km - 4등급 • K5 2.0 LPI 16인치(일렉트릭인입 보조배터리 장착) 자동8단 복합 10.1km/l (도시 · 8.9km/l, 고속도로 · 11.9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1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23g/km - 4등급 • K5 2.0 LPI 17인치 자동8단 복합 10.0km/l (도시 · 8.8km/l, 고속도로 · 11.8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2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 4등급 • K5 2.0 LPI 18인치 자동6단 복합 9.8km/l (도시 · 8.7km/l, 고속도로 · 11.4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33g/km - 4등급 • K5 2.0 LPI 18인치(일렉트릭인입 보조배터리 장착) 자동6단 복합 9.6km/l (도시 · 8.5km/l, 고속도로 · 11.2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136g/km - 4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6인치 자동6단 복합 20.1km/l (도시 · 19.9km/l, 고속도로 · 20.2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79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6인치(일렉트릭인입 장착) 자동6단 복합 19.7km/l (도시 · 19.4km/l, 고속도로 · 20.0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9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81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7인치 자동6단 복합 19.1km/l (도시 · 18.8km/l, 고속도로 · 19.3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1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83g/km - 1등급 • K5 2.0 하이브리드 17인치(일렉트릭인입 장착) 자동6단 복합 18.8km/l (도시 · 18.3km/l, 고속도로 · 19.3km/l)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51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85g/km - 1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